

碩士學位論文

教會行政의 民主化 實踐方案에 관한 研究

－ 韓國教會를 中心으로 －

金 秀 楠

1990年 6月

漢城大學 行政大學院

一般行政專攻

碩士學位論文

教會行政의 民主化 實踐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教會를 中心으로－

(A STUDY ON A PRACTICAL METHOD FOR DEMOCRATIZATION OF CHURCH ADMINISTRATION ON THE FOCUS OF THE KOREAN CHURCH)

指導教授 鄭 成 澤

이 論文을 行政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0年 6月 日

漢城大學 行政大學院

一般行政專攻

金 秀 楠

金秀楠의 行政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0年 6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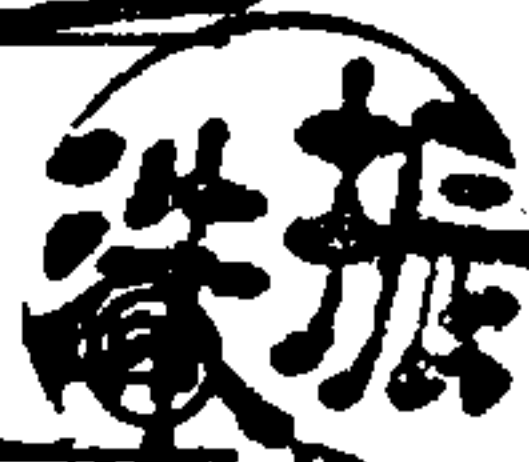
審査委員長

柳 永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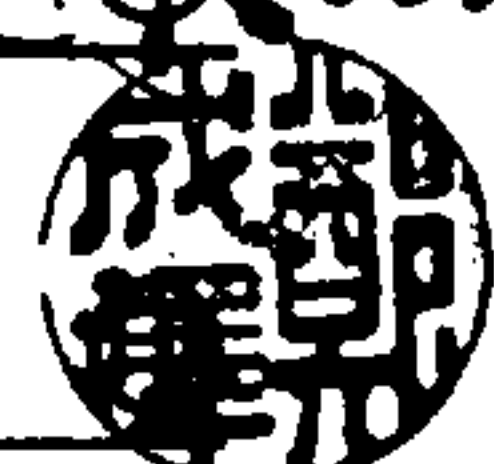
審査委員

黃 振洙



審査委員

鄭 成澤



目 次

第1章 序 論	1
第1節 研究의 目的	1
第2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2
第2章 基督教 教會行政의 理論的 考察	3
第1節 教會行政의 基本理論	3
1. 教會行政의 定義	3
2. 教會行政의 原理	6
3. 教會行政의 教理的 理解	7
第2節 教會行政의 基本要素	8
1. 權威性과 服從性	9
1) 權威性	9
2) 服從性	10
2. 神權性과 人權性	11
1) 神權性	12
2) 人權性	13
3. 勤勉性과 奉仕性	14
1) 勤勉性의 意味와 價值	14
2) 勤勉性의 缺如	17
3) 奉仕性의 意味와 種類	19
4. 人間의 能力性	21
1) 試驗의 種類	21
2) 人間能力의 限界性	23

第3節 教會行政의 民主化 要因	24
1. 行政의 民主性의 理論的 背景	24
2. 人的 要因	25
3. 動的 要因	30
4. 教理的 要因	31
第3章 教會行政의 問題點	33
第1節 教會 指導者의 問題點	33
1. 教會行政의 牧會者의 問題點	33
1) 指導者의 性格	33
2) 奉仕性의 輕視意識	34
第2節 教會行政 組織上의 問題點	36
1. 牧會者的 要因	36
1) 牧會者의 獨斷性	36
2) 牧會者의 說教歪曲	38
2. 制度的 要因	39
1) 教會教育 要因	39
2) 教會組織 要因	39
第3節 教會行政 運營上의 問題點	40
1. 신유은사의 定義	40
2. 신유은사의 通路	42
3. 聖靈의 恩赦危險性	45
第4章 教會 行政의 民主化 實踐方案	49
第1節 教會行政의 人間化	49
1. 神의 權威	49

2. 人間的 權威	50
3. 神 絶對的 權威와 人間的 權威의 區別.....	51
第2節 教會行政의 奉仕化	57
1. 社會 糧食을 위한 祈禱.....	57
2. 社會 救援을 위한 教會行政의 公平性	58
第3節 教會行政의 活性化	60
1. 새로운 人間性的 理解	60
2. 教會의 理解	63
3. 教會의 地域社會 參與	72
4. 教會行政의 能率的 運營	74
第5章 結 論.....	76
※ 參考文獻	79
※ Abstract	82

〈表 目 次〉

〈표2-1〉 교회 기구 조직의 표본	26
〈표2-2〉 주일학교 조직	27
〈표2-3〉 교회의 조직표	27
〈표4-1〉 한국기독교의 교회수와 교직자 및 신도수	66
〈표4-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세포	66
〈표4-3〉 장로교의 교회현황 및 성장.....	67
〈표4-4〉 1974-1981년간의 4개 장로교 성장표.....	67
〈표4-5〉 장로교 통합측의 연도별 성장.....	68
〈표4-6〉 한국개신교 장로회 교단별 종합교재 현황	68
〈표4-7〉 한국종교별 신자통계 AD 1900-2000.....	70
〈표4-8〉 한국 종교별 교세현황	70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오늘날 現代 教會에서 하나님을 세우신 牧會者들은 자신들의 位置와 姿勢를 돌아보아 教會에서 올바른 자격과 역할자가 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牧會者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中心으로 진실하게 신도들을 사랑하며 바로 설 때 信徒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이 論文을 쓰는 필자 자신이 이 연구를 통하여 참 목회자의 자세를 갖추려고 한다.¹⁾

한국 教會는 최근 폭발적인 교인수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教會의 규모가 外形적으로 대규모화하고 있다. 教會는 信仰人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담당하는 특수한 조직체이다.

今日の 급변하는 사회정세와 국제정세 즉 근대화에 따른 고도의 정보화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모든 組織이 급속도로 分業化 및 專門化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教會조직도 時代의 발전 추세에 따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教會행정 조직의 운영은 行政의 부재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牧會者 개인의 지도력과 판단 및 경험에 의해서 運營 되어온 것이 현 실정이다.

一般 行政에서의 정치 행정의 일원론, 행정의 과학성뿐만 아니라 기술성의 중시, 또한 능률성 제고 뿐 아니라 民主性和 效果性的 제고, 그리고 행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構造보다도 人間을 중요시하는 발전행정의 研究는 괄목할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現代의 教會행정에서도 이제는 경건과 영성위주의 牧會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1) 김계욱, 「교회사행정」(서울, 교육연구원, 1987), p.9.

牧會 현장이 도시화, 산업화되어가고 교회규모의 대형화 현상 등 급격하게 변해가는 牧會 환경에 대처하는 教會行政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달성, 정책과 교육 계획의 수립, 기관, 교사, 학생의 조직, 인사임명, 재정, 지휘, 조정, 감독, 평가 등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教會는 더욱 질서의 유지와 통솔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²⁾

그런데도 韓國教會 行政學의 저술에는 교회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절감하고는 있으나 아직 발전행정적 연구를 도입·소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政策決定”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형편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一般行政學에서의 발전적 연구를 教會行政學에 도입·소개하려는 目的으로 研究하고자 한다.

특히 教會行政의 民主化 方案을 여러가지 이론에서 도입 알리는데 본 研究의 目的이 있다.

第2節 研究 方法 및 範圍

이 論文에서는 국가관과 교회관에 대해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目標의 결정—국가의 目標과 교회의 目標—도 행정과정—국가행정과정과 교회행정과정—속에서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최고의 目標은 이미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目標은 행정과정 속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一般行政의 研究方法를 導入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教會는 하나의 공동생활이라는 상황에서 조직과다스림(행정)이 필요하게 된다. 어떠한 조직체를 막론하고 그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行政이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의 科學化이다.³⁾

이 論文에서는 먼저 1章 序論에서 研究의 目的과 方法 그리고 範圍를 선정하고 2章에서는 교회행정의 이론적 고찰을 교회행정의 基本理論과 주기도문 분석을

2) 오인학, 「기독교 교육론」(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4) p.422.

3) 홍의표, 「현대 교회 행정학」(서울:보문출판사, 1982), pp.10-11.

통해 教會行政의 基本要素를 살펴본 후에 教會行政의 民主化要素를 살펴본다.

3章에서는 교회행정의 문제점과 비민주적 요인을 說明하여 이론적 이해를 갖는 다음 4章에서는 교회행정의 개선과 민주적 실천방안을 살펴봄으로써 教會行政의 연구도입 및 적용,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 論題의 연구 범위는 教會行政이라는데 초점을 두고 諸問題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교회의 특성이나 전통에 따라 서구적인 교회와 한국적인 교회는 그 인적 형태와 물적 구성이 다르며 사유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범주내에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研究는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내에서 기독교인의 信仰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교회의 조직구성과 이 조직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타 체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모든 사회 계층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教會行政(Church administration)에 대해서 연구범위를 한정한다.⁴⁾

研究資料는 이미 발간되어 있는 각종 문헌과 이미 발표된 논문 및 서적을 參考로 한다.

第 2 章 基督教 教會行政의 理論的 考察

본 章에서는 教會行政의 이론적 고찰로서 교회행정의 정의 및 그리스도의 모든 思想과 敎訓이 함축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행정적 측면에서 分析하여 보고자 한다.

第 1 節 教會行政의 基本理論

1. 教會行政의 定義

教會行政)(church administration)이란 교회의 諸分野를 조직하고 관리 운영하는

4) 김득룡, 「현대교회학 신강」(서울: 총신대학), 1985, p.58.

諸般活動을 말한다. 즉 教會의 전체 목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회를 인도하는데 관련된 교회 지도자들의 필요한 活動을 말한다. ‘행정한다’라는 말은 라틴어의 administrare에서 파생되었으며 봉사한다(to serve)라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⁶⁾ 따라서 행정은 봉사하고자 하는 주체와 봉사의 대상과 과정 및 모든 目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行政이란 정치사회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공동목표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정의의 실현하는 인간의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 행위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익과 사회정의 내지 사회형평의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며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의 협동적 집단행동”⁷⁾을 意味한다.

영국에 있어서는 17C 이래 “공공사무의 관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고 공의적 의미는 “조직적 협동행위” 또는 공동목표를 달성함에 필요한 “협동적 단체행동”이라는 뜻으로 使用되어 왔다.⁸⁾ 이렇게 보면 국가행정과 교회행정의 차이는 없다 할 수 있다.

교회행정에 대해서 조동진은 “교회행정은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직원과 운영의 기술과 능률”이라고 전통적인 定義를 내리고 있다.⁹⁾

김득룡은 教會行政이란 “教會의 目的에 대한 認識을 촉진하는 것, 경험과 활동을 고무하고 협동하는 것, 자산과 人的 資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⁰⁾면서 기독교계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살핌에 맡겨진 사람들의 재능에 대한 청지기역을 의미한다.”고 한다.¹¹⁾

이는 A. J. Lindgreu의 행정의 정의를 원용하여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린그렌은 이렇게 정의한다. “교회전체를 동원해서 교회의 본질과 선교적인 使命이 무엇

6) 김계욱, 「교회와 행정」(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7), p.10.

7) 김규정, 「행정학원론」(서울: 법문사, 1984), p.6.

8) 김득룡, 「현대교회행정학신강」(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5), p.25.

9) 조동진, 「교회행정학」(서울: 크리스찬헤럴드사, 1981), p.54.

10) 김득룡, 「前揭書」 p.27.

11) 오인락외, 「기독교 교육론」(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4), p.428.

인지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 주어진 모든 物的 人的 資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意味한다.”¹²⁾

여기서는 教會行政을 “教會의 目的을 체계화시키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 결정과 구체화의 합리화”라고 定義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教會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선교 그리고 信仰이라는 目的이 있지만 그 목적의 우선순위와 중점 방향을 체계화시키고 하위목표를 결정하며 둘째, 이 목적달성을 위해 발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갈등의 조정이 있어야 하며 셋째, 合理化라고 한 것은 책임성과 효율성(效果性 및 能率性)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전행정적 측면에서 定義한 것이다.

사실 모든 行政의 基礎되는 기반은 基督教 信仰과 敎人の 信仰이 거듭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행정의 유일한 目的이 거듭난 백성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教會의 目的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教會行政에는 신학적 차원이 늘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神學的 研究는 교회행정의 목표를 지시해주고 그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方法論의 한계를 제시하기 때문이다.¹³⁾

教會政治가 교회의 의사의 최권위적 결정 및 수행의 권위를 形成하는데 있다고 할때 교회행정은 그와 같은 정치를 전제로 하는 교회의사의 구체적 실현과정이며 수행방법이라고 理解될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教會行政은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organization)과 인원(personal)과 운영(managing)의 기술과 능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대교회는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教會組織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조직의 구조를 지니게 된다. 특히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目標를 수립

12) 예를들면, 자주 청지기(관리자)의 비유를 활용하였고 열두제자를 뽑아 지도력 훈련을 한 것이다.

13) 김득룡, 「현대교회학신강」, (서울: 총신대학, 1985), p.20.

14)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크리스찬헤럴드사, 1977), p.54.

하고 조직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組織을 管理하려면 행정력이 필요로 하게 되며 교회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15)

教會行政은 그 자체가 目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배, 선교, 봉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教會行政의 原理

1) 運營面의 原理

a. 妥當性の 原理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괴리가 없어야 할 것임을 말한다. 즉 教會行政은 항상 올바른 목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정리 확립해야한다는 것이다.

합목적성의 원리라고도 한다.¹⁶⁾

b. 公正性の 原理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정책의 수립에 있어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각 교인의 공정한 의견을 반영케 하며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권한의 移讓을 통하여 전권과 행권을 막는 것을 意味한다.

c. 能率性の 原理

하나의 재정적 원리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과 경비를 투입하고 소비를 극소화시키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要求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 평가보다 장기적 평가에, 외부적 능률보다 내부적 능률을 강조해야 한다.

15) 김계욱, 「前掲書」, p.12.

16) 김득룡, 「前掲書」, p.54.

d. 適應性的 原理

이는 새로이 발전되어 나가는 사태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나감으로써 조화적 관계와 능률적 성과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을 意味한다.

•e. 安定性的 原理

변화무쌍한 이 세대속에서 지나친 적응성의 강조로 혁신적 시책이 과감히 실천되게 되면 安定性的 原理가 침해되므로 안정성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原理이다.

f. 均衡性的 原理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본래 輕重을 분별하여 先後의 순위를 밝히고 정력적인 노력과 예산의 공정한 분배를 起하여야 한다는 原理이다.¹⁷⁾

박동서는 行政發展의 평가기준으로서 흔히 行政은 어떠하여야 된다. 또는 바람직한 行政은 어떠한 것이라라고 말하는 경우 이 지침이 되는 것 또는 以上으로 제시되는 것을 行政의 原理라는 말보다 行政理念이라고 하는데 ¹⁸⁾ 이 행정이념의 우선순위는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합법성의 순위로 되는 것이 발전행정의 이념이 될 수 있다고 한다.¹⁹⁾

3. 教會行政의 敎理的 理解

基督教 人口가 1千萬이라면 大韓民國의 人口 4千萬에 비해, 4명꼴에 한사람이 基督教人이라는 셈이 된다. 또 傳統은 100년이 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基督教 人口의 增加에 따라 그만큼이라도 基督教 文化가 樹立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基督敎的 價値觀이라 할 사랑과 正義, 自由와 平等이 基督教 人口의 증가만큼 生成, 발전되어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基督敎的 倫理나 社會 規範의 制定은 물론 그 실현에 거의 無關心한 것이 韓國 基督教의 實情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

17) 「上揭書」 p.56.

18) 박동서, 「前揭書」, p.65.

19) 「上揭書」 p.70.

은 창세기 1장에서 자기형상대로 創造한 人間들에게 복을 주시며, 生育하고 繁盛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요즘의 學問的 用語를 빌린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世上의 自然科學的 人文·社會科學的 그리고 藝術的 지배와 그 활동을 보장하였다는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形狀대로 지음을 받은 人間들의 文化的 使命이라고 생각된다.²⁰⁾ 教會의 立場에서 牧會者는 教會의 繁榮에 관하여 關心을 기울여야 한다.²¹⁾

우리가 敎理的으로 살펴볼때 하나님의 구속성은 公定性, 公益性, 公義性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기위해 世上에 오셔서 罪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救援하셨다.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人間으로 創造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赦罪(die Vergebung Jesu Christi)을 통해서이다. 教會生活을 한다는 말은 赦罪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赦罪는 教會를 바탕으로 하는 基督教 信仰의 유일한 전체적인 내용인 것이다.²²⁾

第2節 教會行政의 基本要素

주기도문속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思想과 敎訓이 함축되어 있음²³⁾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경솔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린 Martin Luther도 이런 사실을 指摘하여서 “주기도문 만큼 가련한 순교자는 없다. 그것은 언제나 하등의 존경도 없고 비판도 없이 남용되어지는 까닭이다”라고 평하였다.²⁴⁾ 그래서 본 論文의 研究를 통하여 기도자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진실된 의미를 깨닫고 올바르게 경건된 믿음과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함에 論文의 目的이 있다.

20)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9) pp.206-208.

21) 김만풍 「중소교회 목회론」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0), p.139.

22) 박근원 「목회학원론」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p.134.

23) E.F. Scott, The Lord's pray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un's, 1952), p.56.

24) 이순경, 「주님의 기도」 (서울: 기독교문사, 1981), p.35.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전도시(약 A.D.27-27년경)²⁵⁾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6:9-13과 눅11:4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가 사도시대에는 사용되었다고 확증이 없지만 늦어도 A.D. 3C. 이후에는 대부분의 教會에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²⁶⁾

오늘날도 어느 教會를 막론하고 예배시에 거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인 만큼 이보다 完全하고 모범이 될만한 기도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릴때에 기도의 內容과 意味를 이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신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예배시 목사의 축도가 없을시에 그것을 대용한 형식적인 암송에 그치거나 예배나 회의시 폐회 신호 혹은 필요한 한 가지 순서로만 생각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理解와 研究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 속에 나타난 교회행정의 意味를 考察하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도문의 本文을 마태복음의 內容으로 하였으며 각 항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누고 있는 여섯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行政理念에 관계된 權威性과 服從性, 神權性과 人權性, 勤勉性과 奉仕性, 人間能力의 限界性 등 다섯 항목으로 나누었음을 밝힌다.

1. 權威性과 服從性

1) 權威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²⁷⁾ 이사야 40장 25절과 43장 15절 등에서 기록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자이다. 그 이름은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²⁸⁾

25) 지원상 「신약의 역사」(서울: 컨콜디아사, 1981), p.95.

26) 고영민 「마태복음(상)」(서울: 기독교문사, 1976), p.262.

27) J. Calvin, *Calvin's Institutes*, Vol3, pp.471-477.

28) Eduard Schweitzer, *Das Evangelium nach Matthaus*,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마태오 복음(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p.158.

인간들은 그를 모독하고 그를 거역해서 범죄하는 대신 경외하고 예배할 상황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베풀어 달라고 懇求해야 한다.²⁹⁾

그리될 때 이 우주 만물은 調和를 이루며 창조질서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아버지’이다. 이는 몇몇 사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意味요,³⁰⁾ 사람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意味이다.

원래 거룩의 의미는 區別된다는 意味로서 구별된대로 위치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절대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구별되고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 통치된 자연이 구별될 때 하나님의 거룩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취약성을 메꾸어주는 ‘임시 변통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곤궁에 처해있거나 우리의 유아적 欲求가 좌절될 때만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질 수 없다.³¹⁾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점에서 同一한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 區別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질 수 없다.³²⁾

또한 인간이 다스리며 공존해야 할 自然을 다스리기는 커녕 파괴하거나 오히려 자연의 다스림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질 수 없다.

2) 服從性

“나라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民主主義 國家도 아니요, 共產主義 國家도 아니요, 社會主義 國家도 아니다.³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제각기 있어야 할 區別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다. 다시

29) H. Marshall, *op. cit.*, p.100.

30) L. Boff, *op. cit.*, p.58.

31) J. Calvin, *Calvin's Institutes*, Vol3, p. 477-478.

32) *Ibid.*, p.89.

33) *Ibid.*, p.479.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福音化될 때 즉, 가난한 자, 착취당한 자, 억압받는 자에게 正義가 실현되기 시작할 때이다. 친교, 조화·참여 그리고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의 유대가 이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동터오는 것이다. 사회 構造的으로 인간에 의한 人間의 착취가 종식되는 사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거되고 공정한 거래를 선호하는 社會가 건설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새벽처럼 밝아오는 것이다.³⁴⁾

그리고 人間과 自然이 상호공존하여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은 人間에게 삶을 제공하는 관계가 수립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내일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한다.

보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개벽되고 있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人格 속에서 그의 말과 解放的 實踐 속에서 현재가 되고 있다. 동시에 그 나라는 절대적 완성이 최종적으로 도래할 내일을 향해 개방되어 있다. 준비해야 한다. 저절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결국 우리 存在의 최종 목표와 理想的 世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은 다 없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는 것만으로서 형성되는 그 나라가 이 땅위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歷史속에 完成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미래의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이다.

2. 神權性和 人權性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34) L. Boff., op. cit., p.109.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다.³⁵⁾

1) 神權性

a.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요구와 의지를 意味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의지는 신구약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외의 다른데서 찾으려고 하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큰 잘못이요, 대단히 어리석은 所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善하시고 은혜로우시다(요 6 : 40).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은혜를 中心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예수도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行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完成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中心하여 있다.³⁶⁾

이렇게 볼 때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勢力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같은 기도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³⁷⁾ 시 103 : 21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도 꼭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뜻은 땅 위에도 꼭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피조물은 그 뜻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³⁷⁾

b.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물들(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짜증 없이 기쁨으로 행하며 지체롭게 행하며 完全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천계에서 완벽하게 施行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교하여 우리가 살고

35) 임은종, 「기도하는 법」(서울 : 목회자료사 1988), p.298.

36) 문창수 「前揭書」 p.236.

37) 「上揭書」 pp.236-237.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 이땅의 모든 人間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말씀)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2) 人權性

a.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땅의 모든 人間들이 하나님의 뜻(말씀)을 순복하게 해 달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땅 위에서 죄인들에 의해 거절되고 있기 때문에 땅에 혼란과 수많은 어두움이 계속 깔리고 있다. 지구의 歷史에서 혼돈과 마음속의 온갖 갈등 原因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며 또 순종하지 못한테서 비롯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뿐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천국에서와 같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나 땅의 人間들은 죄악이 많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서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순종되는 그분의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³⁸⁾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먼저 세계의 현실을 위한 가능성을 자기에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는 肯定的인 可能性의 나라로부터 창조하면서, 형성하면서, 그리고 活動하면서, 현실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 창조적 활동은 ‘하늘로부터’라는 方向을 통하여 표현된다. 그러므로 땅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인식될 수 있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規定될 수 있는 현실을 의미하는 반면, 하늘은 인식될 수 없고 규정될 수 없지만 땅을 위해 規定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意味한다.”

즉, 하늘은 가능태이고 땅은 현실태인데, 하늘의 가능태를 땅의 현실태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현실주의적 종말론이 약화

38) 이상근, 「前揭書」 p.117.

되면서 하늘은 영혼의 구원의 場所로만 설명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몰트만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³⁹⁾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위에서도’ 오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늘에 가기를’바라는 동경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의 救援의 나라는 하늘로 위축되었고 하늘은 영혼의 구원으로 위축되었다.”⁴⁰⁾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땅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땅이 지향해야 할 바는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편 천지만물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특정한 운행을 하는 것이 자명한데, 이는 질서를 방해하는 자인 人間에게서 실현되어야 한다. 人間 存在가 본래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責任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存在라면, 이 기도는 人間이 진실로 인간되자는 기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⁴¹⁾

그리될 때 인간의 책임하에 있는 자연도 자유로워지며 결국 하나님의 뜻인 창조 질서는 回復될 수 있을 것이다.

3. 勤勉性和 奉仕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 勤勉性的 意味와 價値

(1) 勤勉性的 意味

마살은 이 기도의 意味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일용할 양식은 ‘實存을 위한 필요한 빵’ ‘우리가 필요한 빵’으로서 필요한 양만큼만 모을 수 있었던 만나의 概念과 관련된다.

39) J.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역, 창조안에 계신 하나님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86) p.203.

40) Ibid., p.221.

41) J. Calvin, op. cit., p.481.

(나)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을 위한 양식’ ‘가까운 미래에 지탱하기 위한 양식’으로서 역시 만나의 概念과 관련된다.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먹을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란 意味로서 빵은 물질적일 뿐 아니라 ‘영적 양식’과도 관련된다.⁴²⁾

마살은 이 기도의 意味를 (가) (나) (다) 셋으로 분류하면서 (가)의 견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말한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기도자는 자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양식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³⁾

따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제 혼자서 배를 채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關係를 깨뜨리는 行爲가 된다.⁴⁴⁾

또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의) 양식은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生産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生産되는 것이므로, 더불어 消費되어야 한다.⁴⁵⁾

그런데 우리의 먹는 양식이 더불어 소비되는 양식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양식은 하나님이 祝福하신 양식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正義와 友愛의 틀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불의한 양식은 진정 우리의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양식을 훔친 것이다.³⁷⁾

이 같은 맥락에서 성 바질(St. Basil)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너의 집에서 썩어가고 있는 양식은 굶주린 자의 것이다. 너의 침상 밑에서 곰팡이가 슬고 있는 구두는 아무 것을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이다. 너의 옷장 속에 쌓여 있는 의복은 헐벗은 자의 것이다. 너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돈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⁴⁶⁾

일용할 양식은 人間의 實存과 人間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42) H. Marshall, *op. cit.*, p.104.

43) *Ibid.*, p.221.

44) *Ibid.*, p.135.

45) *Ibid.*, p.136.

46) *Ibid.*, p.147.

하나님과 올바른 關係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일용할 양식 이하의 양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30 : 7-9)

또한 일용할 양식은 自然과의 올바른 관계도 설정해준다. 자연은 힘있는 자에게 독점되는 對象이 아니라 힘없는 자까지도 공유되어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결국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과 人間과 自然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勤勉性의 價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하는 기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더 고귀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알맞은 經濟的 條件을 구하는 태도를 말한다. 너무 배가 부르면 人間은 하나님을 잊기 쉽고 인간다운 삶을 상실하게 된다.

야고보 선생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진군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에 족한 만나”만을 내려주셨다.⁴⁷⁾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취하게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 며칠 분을 취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를 지나면 그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意味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만나만을 허락하셨나?

(1) 너무 많은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였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말은 결국 값있고 뜻있는 삶을 상실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날의 양식만 주신 것이다.

(2)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은 간사하다.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이다.”

47) 박희민 저, 「주기도문 강해설교」 (서울 : 보이스사, 1984), p.186.

(3) 날마다 새 양식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였다. 햅쌀밥이 묵은 쌀밥보다 맛이 있다. 뜨거운 음식이 찬 음식보다 맛이 난다. 하나님은 매일 매일 새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4)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롬은 그 날에 족하니라”고 하셨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이 시간을 후회함없이 충만하게 살 때 일생을 값있고 멋있게 살 수 있다.

(5)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信仰을 가지고 人生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내일이 있고 모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날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 우리는 부끄럼없이 살 수 있다. 고귀한 人生의 目的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다.

2) 勤勉性의 缺如

주님께서는 모든 世代를 위하여 특별한 증거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단단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막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이다 (신8:3, 마4:4).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物質的인 수단들을 제공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可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는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셔서 먹어도 굶주리며(레26:26) 마셔도 목이 타게 되는(참조, 겔4:16, 17, 14:13) 정반대의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신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에 滿足하지 않고 욕심나는 대로 한없이 원하는 자들이나, 지나치게 재물이 혼하거나 재물이 쌓여서 무사태평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부류의 사람들은 받고 싶지도 않으면서 실은 끔찍히 싫어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가능한한 자기들의 탐욕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 전체를 쏟아 놓으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놓아야 한다. 또한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 이미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양식을 “우리것”이라고 함으로써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더욱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인해 어떤 義務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을 우리 所有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신8:18). 그러나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점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그것은 사기나 강도질 같이 다른 사람을 해쳐서 다른 사람의 所有를 취해 얻은 것이 아닌 正當하고 純전한 노력의 댓가로 얻은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 자신의 노력과 기술에서 얻어지며 우리가 직접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같이 보인다”할지라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단순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⁴⁸⁾

오늘날 이 땅 위에는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問題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분배의 정신이 결여되어 많은 問題가 생기고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이 분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 社會의 극히 적은 수효의 특권층이 국민대중에 돌아갈 부와 재물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다. 결국 잘 사는 社會가 어떤 사회인가? 균등한 경제문제가 실현되는 사회이다. 즉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하는 기도가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社會이다.

이러한 기도가 현실화된 곳에 참된 민주주의가 꽃피고 공산주의나 특권층을 위한 귀족 정치나 독재주의가 발 붙이지 못하게 되는 줄 안다.

우리는 내가 所有한 양식이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이웃과 社會의 것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48) J. Calvin, 김성주 옮김, 「칼빈의 기도론」 (서울: 남해문화사, 1985), p.123.

3) 奉仕性の 意味와 種類

“우리가 우리에게 罪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罪를 사하여 주옵시고”

(1) 奉仕性の 意味

용서는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祝福받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박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용서와 사랑의 敎訓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 스테반도 돌에 맞아 殉教할 때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한 용서의 기도가 결국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로마를 기독교 복음으로 정복케 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다. 물론 용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케더린 마샬이 ‘자아를 넘어서(Beyond Ourselves)’란 책에 보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나게 說明해 준다.

하아비란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는 친구 잭을 위해 정성어린 도움을 준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끝난다. 어느날 말다툼을 하다가 잭이 칼로 하아비를 여섯 군데나 찔러 거의 죽게 된다. 그때 잭은 겁에 질려 용서를 구한다. 그 순간 하아비는 용서해 준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잭이 법정에서 하아비가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正當 防衛로 찔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 분노가 치밀어 그 분노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의 용서는 결국 勝利하게 된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해하기를 힘쓰고, 둘째로 잊어버리기를 배우며, 셋째로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⁴⁹⁾

특히 지도자는 예수님처럼 어떤 條件도 없는 無條件的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실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奉仕의 意味이기 때문이다.

(2) 奉仕性の 種類

a. 罪의 容恕

49) 박희민, 「주기도문강해」(서울:보이스사, 1984), p.202.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한 責任을 人間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人間은 자기의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서는 안될 일들을 허용했다.⁵⁰⁾ 罪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이다.

원래 피조세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 自由의 無責任性에 의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에 惡하다.⁵¹⁾ 죄는 단순히 人格的인 問題만이 아니라 社會的이고 歷史的인 차원을 갖고 있다. 죄는 그것을 범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죄는 제도, 편견, 도덕적·법적 기준, 그리고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영구화되고 있다.⁵²⁾

이러한 罪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무감각, 연대성의 결여, 그리고 사랑의 결핍 속에서 발견된다.⁵³⁾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나에게서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용서하고 하시는 것이다.⁵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容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려 모든 관계를 단절한 狀態에서 이를 청산하고 모든 關係의 回復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다. 회개하여 용서를 체험한 자는 동료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 예수에게 있어서 동료인간에 대한 죄용서는 수동적인 참음이나 견디어냄의 意味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화해와 사랑의 자세를 의미했다.⁵⁵⁾ 그러므로 우리는 人間과의 關係를 단절하는 人間에 대해서 그저 묵과하기 보다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단절된 인간 관계의 회복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또한 人間과 자연의 단절로 인해 파괴된 自然은 人間에 대하여 양자음하는 자연에 대해서 공존 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진정한 봉사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근원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마18 : 23-35, 골3 : 13)

50) H. Cox, God's Revolution and Man's Responsibility, Glendale : Regal Book, 1976.

한모길역,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 세계기독교 사상전집12(서울 : 신태양사, 1978) p.264.

51) L. Boff, op. cit., p.30.

52) Ibid., p.191.

53) J. Calvin, Genesis,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54) 허역 「나를 따르라」(서울 : 신교출판사, 1978) p.201.

55) 성종현 「前揭書」 p.154.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용서의 빛에서 타인을 용서하여 그의 실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누리는 자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서서 ‘우리의 罪를 사하여 주옵시고’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될 것이란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⁵⁶⁾

b. 公正性

‘같이’인 ws는 인과율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赦免을 구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앞에 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要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罪에 대한 사면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개의 마음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條件 때문에 이 조항이 반은혜 적이요, 율법적이라고 반대하기도 하지만(그러나 구약에도 실제로 하나님의 규례가 낭독되는 속죄절에는 자신의 이웃과 미리 화해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화해가 成立된다는 규례가 있었음) 이 條項이 人間 상호간에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받아 들인다면 무관하리라고 본다.⁵⁷⁾

4. 人間の 能力性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惡에서 救하옵소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 여기에 人間能力의 限界性이 있다.

1) 試驗의 種類

보프는 惡의 實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惡의 거대한 힘은 그것이 歷史와 犧牲者를 갖고 있다. 이 世界에 存在하는 모든 사람이 그 희생자이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한 우리는 오염된 환경속에서 태어난다.

56) J. Calvin, *op. cit.*, p.488.

57) 한국신학연구소, 「前掲書」 pp.163-164.

우리는 人間的・制度的・歴史的 條件에 의해 빈사상태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그 罪는 우리를 점점 더 무력화시켜 우리는 惡의 試驗을 自己發展의 디딤돌로 삼기는 커녕 오히려 惡의 試驗에 빠져 불신실과 우리 自身の 存在에 대한 否定에 떨어지게 되었다.⁵⁸⁾

이러한 惡의 試驗은 예수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 순간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전생애를 따라다닌 어두운 그림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마의 나라에 대립하여 세워졌는데, 악마는 나태하게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自身の 罪惡을 윤표시킨다. 예수의 위대함은 惡의 試驗을 받지 않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의 能力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⁵⁹⁾

이처럼 이 세계는 악의 시험을 모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시험이 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악마의 시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한다. 다른 인간과의 협력을 방해하려 한다. 自然에 대한 위임 통치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한다. 즉,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일이라면 온갖 시험을 동원하는 것이 악마의 계략인 것이다. 예수의 재림이 있는 날까지 악마는 自身の 活動을 중단하거나 게을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可能性으로 삼아 삶의 행동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人間實存의 나약함을 認定하여 악의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간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경우가 있고 또 마귀가 시험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경우는 마귀가 시험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58) L. Boff, op. cit., p.176.

59) J. Calvin, op. cit., pp.489-492.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야고보1:13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惡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적인 방식의 시험을 意味한다는 事實이다. 즉 하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일이 없으신 것이며, 또한 마귀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다.⁶⁰⁾

2) 人間能力의 限界性

a. 限界性

시험은 시험 혹은 유혹의 뜻이며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뜻 아래에의 유혹이란 뜻이 있다.⁶¹⁾ 이 단어는 시험하는 行爲와 試驗받는 行爲에 대하여 가르칠 뿐 아니라 사탄의 계속된 교활함 때문에 우리가 죄에 굴복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여기의 시험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종말이 오기 직전에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의 커다란 시련만을 생각해 하여 볼 수도 있으나 관사가 빠져 있음으로 그 試驗이 아니라는 점을 볼때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견해라고 본다.⁶²⁾

예수께서도 自身을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간구하셨고 유대인의 18기도문에도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리의 일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 하소서란 말이 나오기도 한다.

b. 克服을 위한 方法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 順從하도록 우리 마음을 돌리시는 聖靈의 恩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계교와 맹렬한 공격에 대항해서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聖靈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험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다. 즉 우리 自身の 지나친 욕심이나 마귀의 장난으로 인해 마음의 생각이 사악해져서 律法을 범하도록 부추기는데, 그 사악한 생각들이 바로

60) 임은종, 「기도하는 법」(서울: 목회 자료사 1988), p.308-309.

61) 최기재, 「前揭書」 p.213.

62) 한국신학연구소 「前揭書」 p.164.

試驗이다. 원래는 악하지 않은 것인데 마귀가 간계를 부림으로써 시험이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약1 : 2, 14, 참조. 마4 : 1, 3, 살전3 : 5). 이러한 試驗은 좌우에서 온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즉 우리의 지나친 욕심에서 오는 것이든 마귀의 간계로 인한 것이든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러한 두 種類의 試驗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격려하시며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能力으로 강건함을 받아 악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 넣더라도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느 편에서 무엇이 오더라도 선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즉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도 자만하지 말며 역경에 처할 때에도 낙담하지 말도록 기도하는 것이다.⁶³⁾

第3節 教會行政의 民主化 要因

1. 行政의 民主性的 理論的 背景

1) 民主性 概念

民主性(democracy)이란 국민의사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國民을 위한 行政을 遂行하며 조직내의 人間關係를 민주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民主性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는 行政을 한다는 意味에서 합법성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다.⁶⁴⁾

2) 行政의 倫理와 參與

목회관에 입각한 行政倫理가 요구된다. 教會의 정치적 중립, 부정·부패의 배제, 업무순행의 공정성,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충성 등이 중요한 行政倫理로서 確立되어야 한다. 또한 教會의 당회 제직회 등 산하기관을 통하여 教會行政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교회주요정책의 정책결정과정에도 관계당사자의

63) 김성주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서울 : 품만사, 1985) p.129.

64) 유영옥 「행정학」(서울 ; 세경사, 1987), p.59.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⁶⁵⁾

3) 民主的 價値觀의 形成

行政의 참다운 民主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民主的 行政行態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民主主義的 가치관이 形成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계급과 권한에 개의하지 않는 충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둘째, 갈등을 해결하는 데 관례적인 방식인 강제나 타협보다 합의에 의하려는 태도

셋째, 조직과 개인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만 합리적인 기반 위에서 이러한 갈등에 기꺼이 대처하고 이를 조정하려는 자세.

2. 人的 要因

1) 組織上 要因

組織은 자원들을 敎회의 기본적인 영적 目的을 달성하도록 동원하기 위해서 敎회가 필요로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組織 構造는 결과 그 자체라기 보다 결과에 이르는 手段이다. 조직은 敎회 회원들에게 敎會의 生活과 事業에 의미있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한다. 조직은 敎회가 經營할 수 있는 규모대로 使役하도록 한다.

組織은 우리 소화 기관과 같아서 그것은 內部的으로 그 고유한 目的을 조용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例를 들면, 한 개인은 소화 기관에 고장이 있을 때에야 비로써 소화의 과정들을 생각하게 된다. 實際的인 問題는 소화라기 보다는 소화 불량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敎會 組織 構造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다. 조직이 명백히 重壓感을 느끼고 있다면 문제는 항상 조직이라기 보다는 조직의 不實에 관한 것이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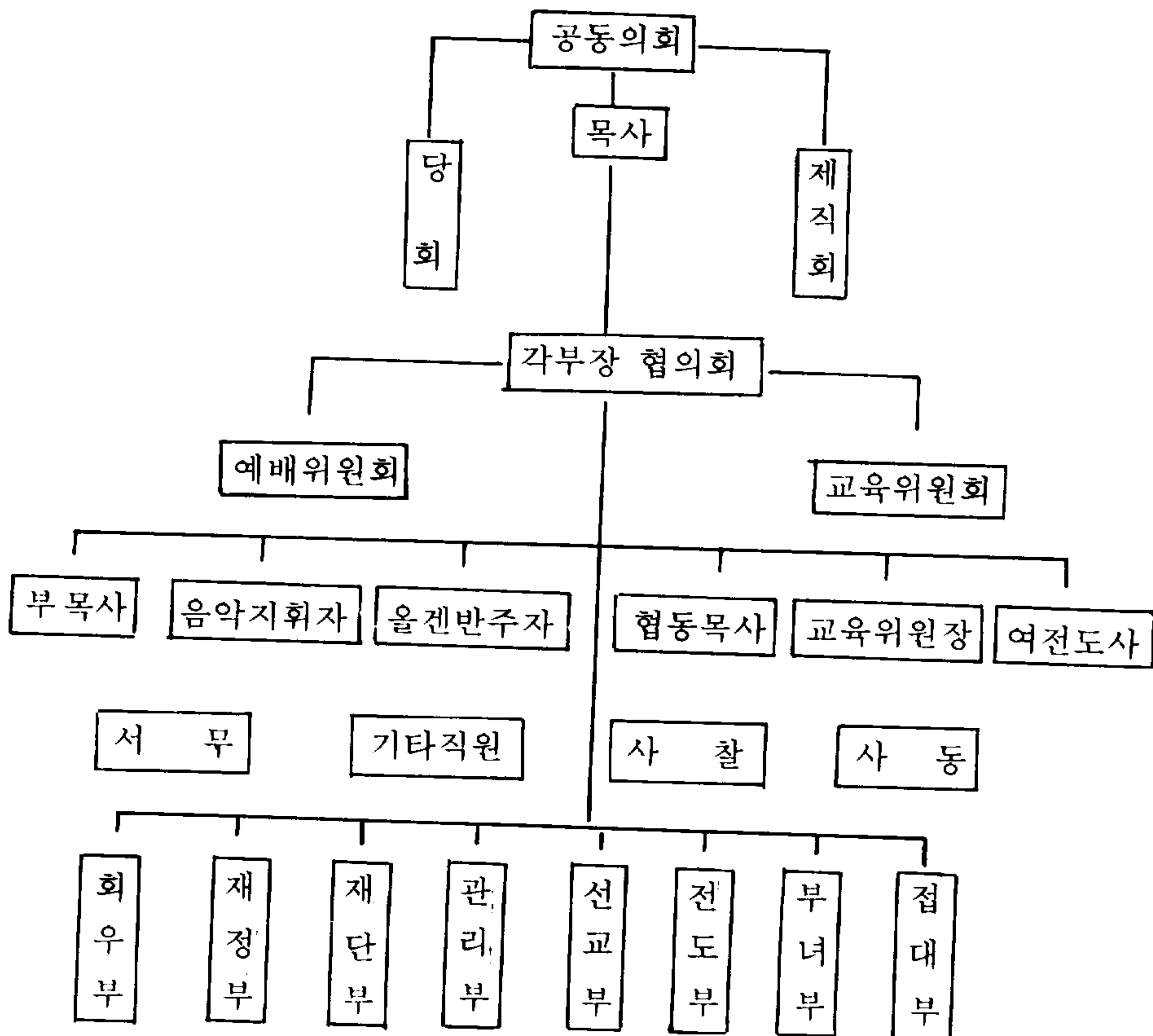
65) 김규정 「신고행정학원론」(서울; 법문사, 1984), p.35.

구체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표 <2-1>에서 살펴보겠다.

<표2-1>

교회 기구 조직의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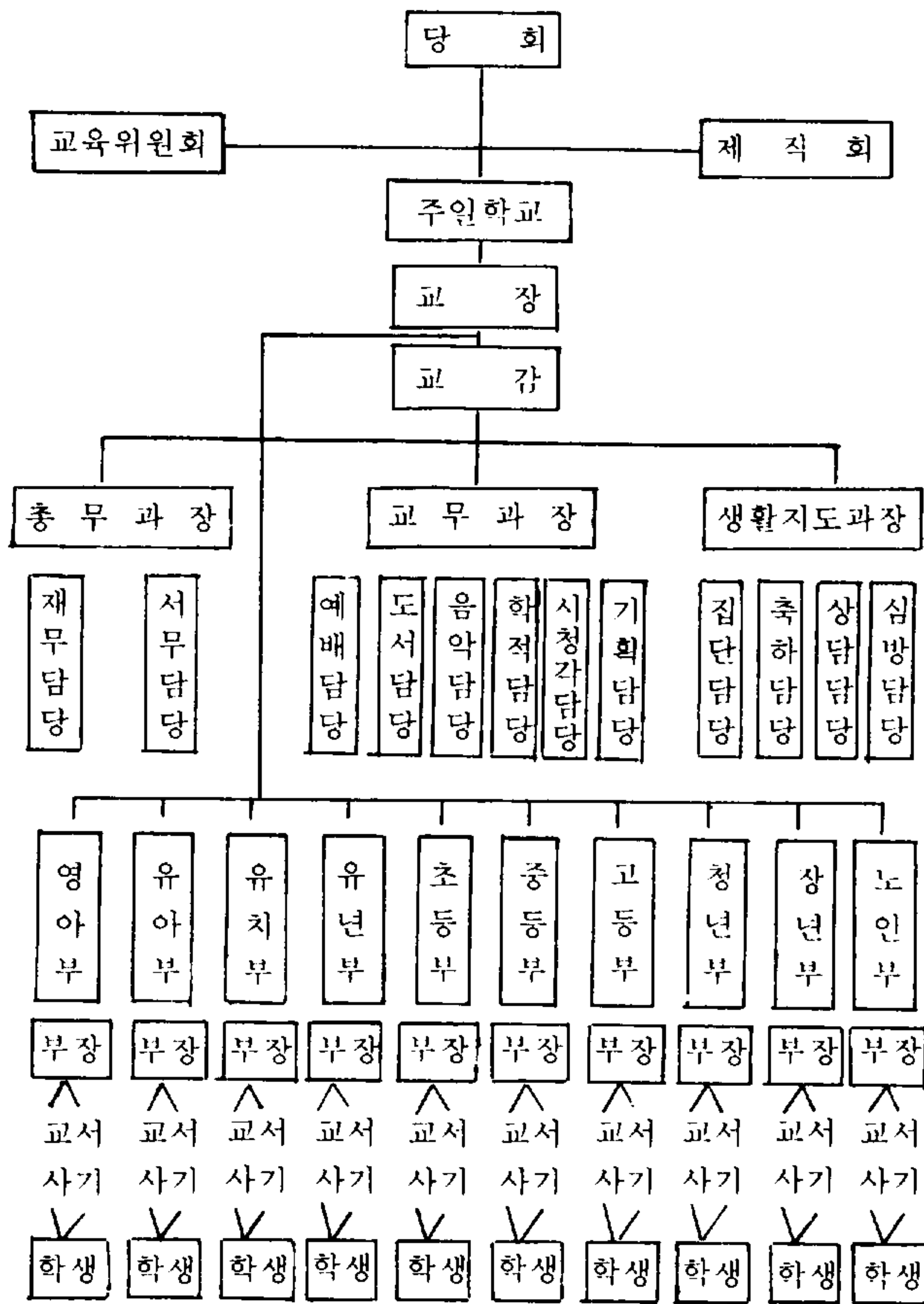
(의결기관과 집행부서와 실무직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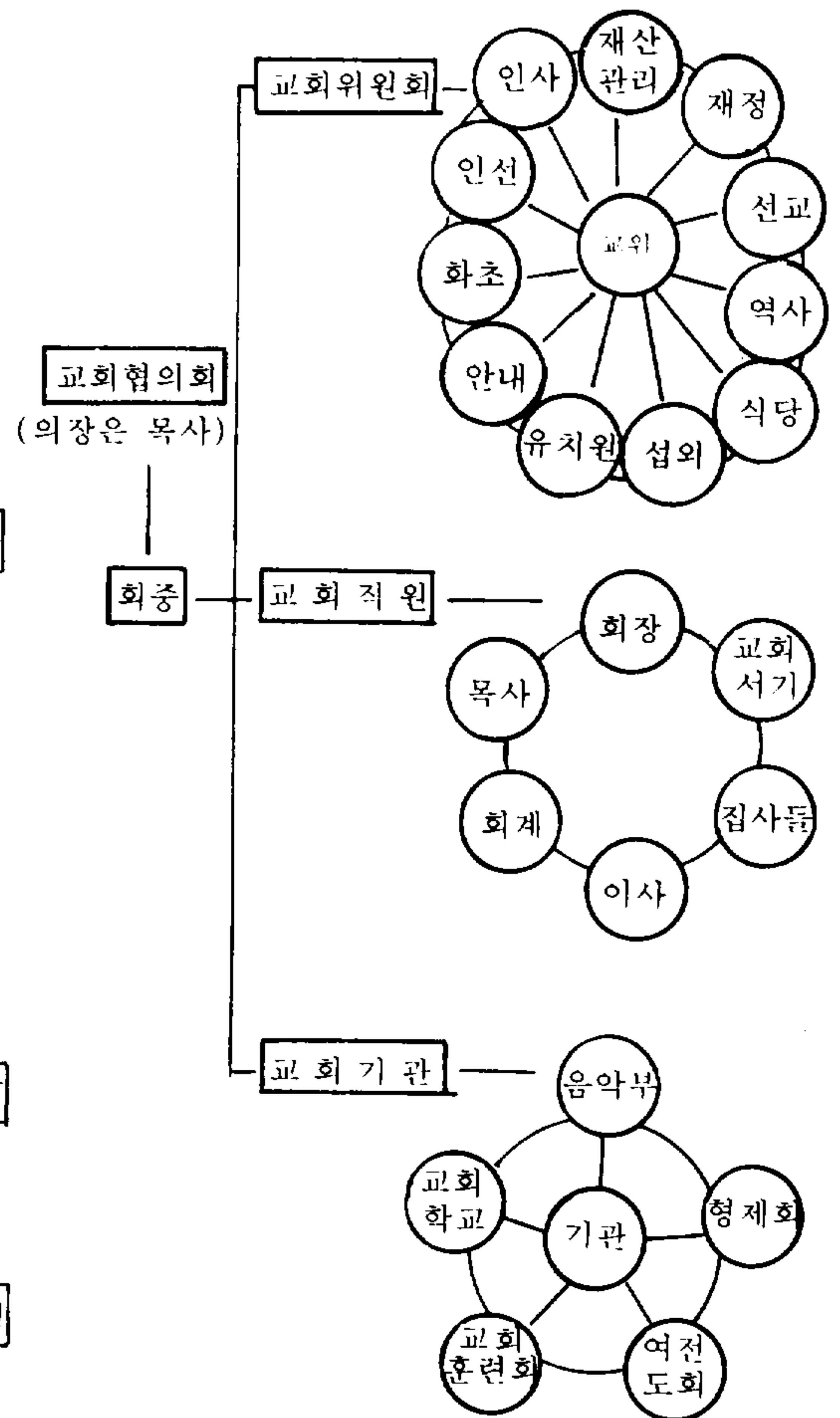
한국교회를 위한 문제 개선 방안(조동진 저, 교회 행정학 p. 184) 참고.

또한 教會組織을 <표2-2>에서는 주일학교 組織에 관한 組織表를 살펴보고, <표 2-3>에서 教會의 여러가지 組織을 모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2-2> 주일 학교 조직



<표2-3> 교회 조직표



66) 이정희 「교회행정편람」(서울: 침례신학대학 출판부, 1987), p.71.

2) 牧會者의 要因

牧會者는 教會 生活의 모든 부분의 사업계획과 실천의 行政的 책임자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행정의 임무이다. 牧會者의 行政上 위치는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存在이며 행정상의 수반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행정의 수반으로 교회의 장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목회자는 조직과 행정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이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는 교회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다. 따라서 牧會者는 각 부서별 사업 조장에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牧會者는 각 부서별 직무가 포함하고 있는 靈的 意味를 알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상의 언급은 教會行政 책임자인 목사에 대한 概念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여러 직원과 각 부서의 장과 위원들은 그들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제직회에서 教會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면 목사의 최종적 재가를 얻은 후에도 그 계속 수행 과정에 있어서 목사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⁶⁷⁾

목회자의 주요한 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단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회 밖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일.

둘째, 교회 예산을 위시해서 건축 헌금, 교단의 상회비 등을 포함한 교회의 재정적인 運營을 위한 活動.

셋째,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기관장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

넷째, 교회 건물과 재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

다섯째, 정해진 때에 보내는 민첩한 서신회답, 정확한 기록과 통계, 노회나 총회에 보내는 그때 그때의 보고서 서신 왕래, 사무직원의 관리 등등 사무 처리.

여섯째, 자기 교회에 있어서 소정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교단 사무처와의 협조와 교회 밖에서 모이는 會議에 평신도가 꼭 參與하도록 하는 일.

일곱째, 자기 교회 일 밖에 교단의 간부로나 교단 사업의 지도자로서 뽑혀 일하는 것.

여덟째,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여러 組織體의 活動에 교인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지난 해의 활동보다도 더 효과적인 運營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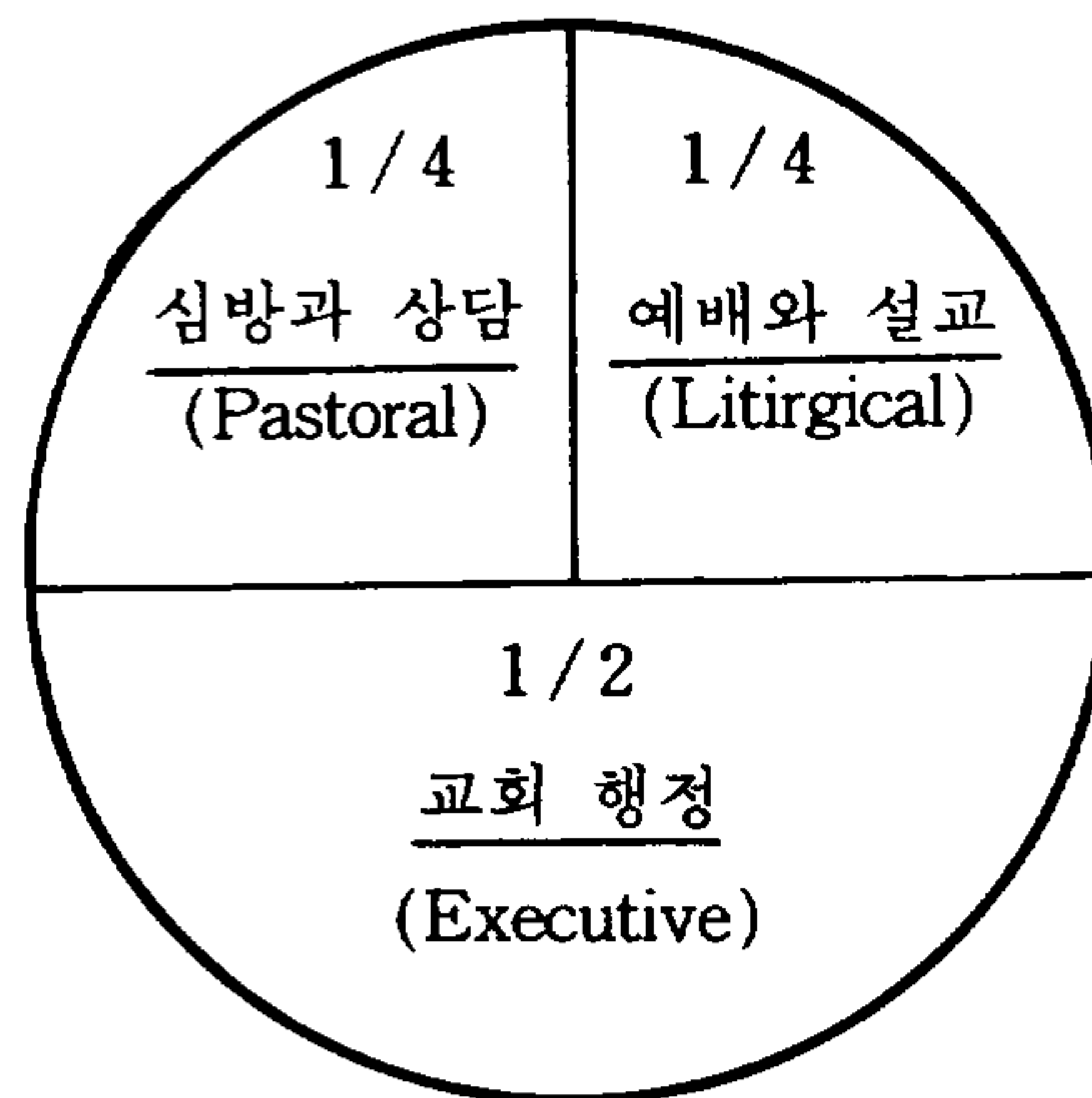
67) 홍희표 「현대교회 행정학」(서울:보문출판사, 1982), p.33-35.

아홉째, 교회 안에 있는 반대 세력을 잘 다루는 人事問題의 專門家로서 일함으로 교회 프로그램의 지연과 教會가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메이비스 교수는 “可能하면 목사는 교회의 관리와 行政을 위하여 그의 시간을 4분의 3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말하고 있다.⁶⁸⁾

메이비스(Cury Maris) 교수는 목사의 직능별을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있다.

(목회자의 시무와 시간 배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깊은 關係 속에 각기 임무를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며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교회 組織인 것이다. 이러한 組織이야말로 생동하는 組織이라 할 수 있다.

68) 조동진, 「교회행정학」(서울: 크리스찬헤럴드사, 1990), p.153.

3. 動的 要因

1) 教會 行政의 基本要素들

教會는 늘 새사람들을 써서 그들의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하여야 하고 경험있는 자들은 더 중한 責任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강력한 기독교 신자 정치가로 길러내는 것은 教會의 중대한 기회중의 하나이다.

一般的으로 教會行政에 관한 기본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 教會의 組織이 가장 좋은 방법은 教會의 目的을 가장 훌륭히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原理에 기초해야 한다.

둘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教會 프로그램이 그 추구하는 바 果(Goal)에 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이용가치 있는 기교(Techniques)를 요구한다. 기교의 발전을 따라 가는 것은 불변한 基督教의 眞理를 변질시키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현대의 목회자는 보다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편리한 文明의 利器, 보다 효과를 풍성케 하고 일의 분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온갖 方法을 써야 한다.

셋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教會 건물의 효과적 건축에도 의존된다. 教會의 건물을 계획할 때 전통적 양식을 다루는 것보다는 목사의 계획에 효과적으로 적응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현대 教會의 건물은 장엄미에 그치지 않고 예배의 효과와 教會의 프로그램에 유효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네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효과적인 평신도들의 지도력의 使用에 의존된다. 教會의 조직이 면밀히 構成되어 完成된 후에는 모든 신도들을 그 재능대로 적절히 教會 프로그램에 봉사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최선의 教會行政 管理는 재정과 함께 사람을 얻는 것이다. 청직이 직분의 훈련과 연보정신의 확립을 통하여 신도의 마음에 봉헌적 義務感을 심어주는 것은 크게 重要的한 일이다. 教會행정은 결과적으로는 그 人間의 생명을 얻는 일의 目的이다.

여섯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신도들이 教會 봉사를 통하여 자기들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여 가는 것을 目的하는 데 있다.

일곱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사람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

여덟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民主的 方式의 진행을 따라야 한다.

a. 계획의 작성, b. 진행의 방법, c. 실행의 결정 등을 신도 개개인이 모두 자기 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물론 예외는 있을지라도, 모든 형편에 적합할 수 있는 표본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열번째, 최선의 教會行政은 최선의 집행자로서의 지도권을 찾는 데서 기대할 수 있다.⁶⁹⁾

4. 敎理的 要因

1) 教會(The Church)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성서적인 教會는 복음에 의한 신앙과 교재 속에서 언약에 의해서 연합된 침례받은 신자들의 지역적인 단체이다. 이 단체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식을 집행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며, 그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 권리, 특전을 활용하며,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하도록 努力하는 것이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民主的인 過程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치적인 단체이다. 이러한 教會에서 회중들은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教會의 성서적인 직분은 목사와 집사이다.

2) 協同 事業(Cooperation)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 왕국의 사업을 위한 協力을 위해서 지방회나 총회를 組織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상호간이나 교회들을 다스리는 아무런 權威가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힘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고, 聯合시키며, 지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자발적이고 助言的인 組織이다. 신약성서적인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고, 교육하

69) 조동진 「前揭書」 p.158-160.

며, 구제하는 일에 서로서로 협조하였다. 신약성서적인 意味에서 기독교의 연합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의하여 共同目的을 위하여 영적인 조화와 자발적인 협동을 의미한다.

협동은 달성되어야 할 目的이 스스로 정당화될 때, 그리고 이러한 협동이 양심의 배반 혹은 신약성경에 계시된 말씀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 양보를 포함하지 않을 때에 여러 기독교 교파들 간에 바람직한 것이다.

3) 그리스도인과 社會 秩序(The Christian and the Social Order)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自身の 삶과 人間社會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최상으로 추구해 나갈 의무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산업, 정부, 사회 전체가 의와 진리와 형제애의 원리에 지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한 사업에 있어서 선의로 모든 사람과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양보하지 않고 사랑의 정신으로 주의깊게 行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4) 청지기 직분(Stewardship)

하나님은 現世的이거나 靈的인 모든 축복의 원천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 自身도 그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온 世上에 대해서 영적인 채무자이며 복음에 대한 거룩한 보관자의 위치와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 매여 있는 청지기 직분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時間과 재능과 물질적인 所有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 아래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위탁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수단을 기쁨으로, 규칙적으로, 組織적으로, 적절하게, 자유롭게 이땅에서 구속자의 기뻐하시는 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드러야 한다.

第3章 教會行政의 問題點

이 章에서는 우리나라의 教會行政의 非民主的 現황에 대한 考察을 통하여 현재 한국 教會의 現況을 살펴보고자 한다.

第1節 教會指導者의 問題點

I. 教會行政의 牧會者의 問題點

1) 指導者의 性格

一般的으로 教會行政에서의 조직은 一般 行政學에서 갖고 있는 理論的 체계와는 상이하다. 이는 一般 行政에서 조직행정은 군대에서 발달한 계선조직이나 막료조직⁷⁰⁾처럼 획일적인 것이지만 教會行政은 다른 여러가지 宗教的 特性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지도자의 성격에 따라 形成되어 왔다. 대부분의 조직이론에 의하면 목회자는 자원의 근원(Source of help)으로서 성도들에 대하여 명령적 지시보다는 조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⁷¹⁾

教會行政의 觀點에서 牧會 機能이란 行爲와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상담 권고 등 行爲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명령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지시, 교육, 통제, 결정, 시행 등 教人行爲와 직접 관련된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組織理論 체제보다도 실천을 특히 人間關係의 실천을 강조하는 약간의 학자들은 목회활동도 때에 따라서는 교인에 대해서 조언과 권면 대신에 직접적인 명령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⁷²⁾

70) J. Pfiffner & F. Sherwood, Administrative Theory (New Jersey : Prentice Hall, 1960), p.28.

71) Dale. E. "Planning and Developing the Company Organization Structure" Association, Research Report No.2. (New York, American Management 1962), pp.71- 73.

72) Ibid.

목회 경험으로 볼 때 목회자가 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명령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회의 환경에 따라 카리스마스적인 집권화는 교인의 사기에 지대한 影響을 미친다. 그 결과 목사는 行政에 대하여 다양한 태도를 취한다. 목사의 태도에 따라 行政業務를 싫어하거나 평신도에게나 어울리는 평범한 잡무로 여겨 목사 자신은 그와같은 것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行政에 목사가 관여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行政的인 責任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교회행정은 교회 조직내에서 교인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교회내 분위기를 보면 많은 교인들의 기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과의 關係만을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教會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구상은 교회에 참석하는 일만으로는 결코 理解될 수 없다. 이것은 非公式的 組織(informal organization)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는데 이 비공식적 조직은 개개인 자신들의 성격, 특정한 문제의 관심과 作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런 意味에서 교인과 교인들이 자기방어와 자기욕구 충족을 위해 비공식적 組織은 필요하며 공식적인 교회의 목표에 합치되어야 한다.⁷³⁾

2) 奉仕性의 輕視意識

(1) 牧會者의 權威意識

教會行政에서 牧會者는 항상 올바른 목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정리 확립해야 한다.⁷⁴⁾

그러나 現實에서 목회자는 하나님만이 교회내에서 권위와 거룩성을 나타내도록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내에서 지나친 權威 意識을 갖는다. 또한 “안수문제”에 있어서도 무당들처럼 목사님들께서 주술적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問題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韓國教會行政의 낙후성에 대한 要因은 여러각도에서 찾아 볼 수 있겠으나 가장

73) 유종해, 「현대조직관리론」(서울: 박영사, 1988), pp.111-113.

74) 김득룡, 「前揭書」 p.54.

主된 要因은 다음과 같은 의식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a. 教會行政에 대한 牧會者の 敏感性 缺如

목회자들의 행정에 관한 태도는 행정을 가능한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가지거나 行政과 같은 사소한 일은 평신도나 할 일이라고 초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은 오직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식구조가 지배적이다.⁷⁵⁾

教會行政의 발전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보다 더 영적인 일에 전념하므로 教會를 성장케 해야한다는 목회자의 안일한 전통에 안주하려는 의식구조가 教會行政 발전의 沮害要因이된다.

b. 傳統的인 思考方式의 固着化

韓國教會는 아직도 文化와 宗教가 서로 관계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속된 사회와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고착되어버린 교리, 교권, 권위, 안일주의에 그대로 앉아 있는 기동성을 잃어버린 教會로 변했다.⁷⁶⁾

(2) 奉仕性の 缺如

韓國에 基督教가 유입될 때 그 유입의 주체는 선교사였다. 그들은 복음전파의 전래의 方向에 따라서 韓國을 복음하는 정복의 태세로 나섰던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왕국(christendom)을 이땅에서 확장하는 作業이었다.⁷⁷⁾ 그들은 韓國의 전통종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물이해와 무관심으로 基督教와 상호배타적인 立場을 취했다.⁷⁸⁾ 오늘날 韓國 教會가 안고 있는 教會論의 問題는 이 선교사들이 소개한 제1세계 신학의 체계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것ियो” “구하라 그러

75) 허 명 「前揭書」 p.26.

76) 하해룡, “「현대문화와 교회현실」」 복된말씀(1969. 12월호) p.20.

77)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6), p.138.

78) 선교사들이 이러한 태도는 주로 두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는, 보수적이고 개인적이고 다분히 타계적인 신앙형태를 소유했던 선교사들의 신앙적 이유이고, 둘째는, 일본과의 미묘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과 기독교 문화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우월주의가 내재된 미국본국의 훈령 때문이다. 박봉배, 기독교 윤리와 한국문화 (서울, 성광문화사, 1983), p.268.

면 찾을 것이지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能動的 努力을 촉구하고 계신다.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다. 生産性的 奉仕現象을 우리는 뿌리 뽑아야만 할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 일부인 일용할 양식을 위한 노력의 추구가 오늘날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基督教人일수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기도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자선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심판받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第2節 教會行政 組織上의 問題點

1. 牧會者的 要因

1) 牧會者の 獨斷性

牧會者の 자격의 문제점은 목회자의 人格的인 問題點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이 人格은 윤리적인 인격과, 知的인 인격 그리고 영적인 인격으로 나눌 수 있다. 牧會者は 이 세가지 인격적인 자격에 늘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는 人間中心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는 인간으로서 진실해야만 한다.⁷⁹⁾

오늘날 목회자의 人格的인 결함으로 교회에서 많은 問題가 생기는 것이다.

a. 倫理的 問題

디모데전서 3:1-7의 牧會者の 자격 중 한가지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倫理的 人格을 언급하고 있다.⁸⁰⁾ 가르치기를 잘 하는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구타하지 않는 자, 관용하는 자, 다투지 않는 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닌 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 등이 있는데 이 윤리적인 인격들에 목회자가 조금만 무신경하게 된다면 비윤리적인 문제점을 牧會者が 나타나게

79) 지글러, 「목회학개론」, (서울:기독교지혜사, 1986) p.111.

80) 이정희, “목회자의 인격과 생활에 대한 연구”, 「참신논집」, 제7집, (대전:침례신학대학, 1984), p.102.

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치 못하고 세상적인 환경에 의하여 목회자들중 非倫理的인 行動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격없는 牧會者로 認識되어버린다.

이름을 날리던 능력있는 牧會者들이 명예, 금전, 이성 등의 비윤리적인 問題로 社會와 敎界의 물의를 일으키고 목회직을 그만두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을 들어 쓰신다. 현대 목회자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倫理的 人格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b. 知的 資格 問題

牧會者들은 매우 知性的이어야 하고 理性的이어야 한다.牧會者들이 종종 범하는 잘못은 理性的인 판단에서 잘못된 것이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용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⁸¹⁾ 즉 지적으로 비정직하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사고와 理性을 통하여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고쳐야 하나, 牧會者들 중 自身の 잘못이 분명 드러나 理性으로 판단하여 경우에서 벗어나도 하나님의 뜻, 영적으로 라는 말로 自己의 잘못을 合理化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러한 牧會者에게 실망을 느끼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牧會者는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깨달아 참된 理性과 知識으로 그것을 복음 전파에 집중시켜 참된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⁸²⁾

知的 人格이 결여되었을때 그때 억지가 나오고,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C. 靈的人 資格의 問題點

牧會者는 영적인 人格이 성숙된 자이어야 한다. 즉 牧會者는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가 영적 인격의 問題에 있어서 너무 人間的인 方法과, 수단과, 組織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 기도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姿勢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할때 목회자는 올바른 牧會를 하게 되는 것이고

81) 이정희, 「목회자의 인격과 생활에 대한 연구」(대전: 침례신학대학, 1984), p.105.

82)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 대한예수교 총회교육부, 1975), p.41.

또한 資格이 있는 것이다.

人間的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牧會者들은 외견상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牧會者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영적인 資格을 갖추야 하겠다.⁸³⁾ 결국 現代教會는 참된 목회자를 바라고 있다. 牧會者는 현 시대의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더욱 자신의 역할과 자격을 바르게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완전한 자격과 역할을 겸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자기자신을 연마하고 자신과 싸워나갈때 이 시대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2) 牧會者의 說教 歪曲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인도할 使命을 부여하신 것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잘 전하나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하여 말씀을 변질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主張과 理論으로 만들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說教의 目的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속에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안에 거할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해도 잘못은 없는 것이다.⁸⁴⁾

설교의 올바른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자신의 理論과 主張과 인기 전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은 크나큰 問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牧會者라면 곧 설교자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說教者로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의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미혹되어 이단 사설로 빠져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어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이다.

83) 이정희, 「목회자의 인격과 생활에 대한 연구」(대전: 침례신학대, 1984) p.111.

84) 정장복 「설교의 파트너」(서울: 양서각, 1982), p.50.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그대로 분명하게 전하여 올바른 길로,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2. 制度的 要因

1) 教會教育要因

教會에서 信仰과 教育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가 信仰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생애도 가르침의 생애였다. 하늘 나라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었다.

로마의 교부 제롬은 일찌기 교수할줄 모르는 자는 牧師職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⁸⁵⁾ 牧會者는 가르치는데 유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 時代에 基督教 教育에 관심을 가진 많은 목회자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牧會한다. 그러나 아직도 教會教育에 무관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敎人들을 가르치며 특히 유년부에서 중고등부까지의 信仰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연령층에 무신경하며 教育에 재정을 투자하는데 망설이며 敎人들의 수만 늘어나기를 기대하면서 量的인 팽창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과 方法에만 관심을 쏟는 牧會者가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教會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牧會者는 教育에 힘써야 한다.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유년들과 中·高等 學生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教育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은 장래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것이다. 또한 장년들에게 올바른 教會教育을 관심있게 행한다면 절대로 잘못된 이단사실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牧會者가 진정 教會教育에 힘쓸때 信者와 教會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위에 설 것이다.

2) 教會組織要因

예수님은 섬김의 本을 친히 보여 주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牧會者들에게 섬김의 職分을 주시었다.

85) 광안련, 「前揭書」 p.50.

牧會者는 羊을 돌보는 者로서 羊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者이다. 초대교회의 牧會者들의 상은 예수를 따르고 그를 증거하고 그의 뜻을 받들어 世上을 섬기는 것이다.

牧會者들 중 이러한 섬기는 목회를 망각하고 自身이 섬김을 받으려 하며 교계, 사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며 높아지려고 한다.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날 牧會者들이 내 自身, 내 교회, 내 교파만 잘되고 높아지겠다 하지 말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교회, 교파를 섬기며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牧會者도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이다.

“행함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약2:26)라고 하였다.

牧會者는 늘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自身의 위치와 형편을 늘 살펴야 한다. 자신의 위치와 형편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自己 自身을 돌아보아 쳐서 복종시키어 올바른 牧會者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사도바울 先生은 ‘늘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올바른 牧會者가 되려한다’고 말씀하셨다. 牧會者가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헌신한다면 목회자를 따르는 신도들 또한 모범적인 신도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

第3節 教會行政 運營上의 問題點

現代 教會에서 특히 거대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흔히 “신유은사”를 自身이 神을 대변하여 自己가 한 것처럼 한다.

신유은사에 대해서 考察해보고 그래서 이러한 問題點이 있는 이러한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유은사의 定義

성령의 은사는 教會를 위해서 德을 세울 수 있는 그릇을 택하여 부어주신다. 예수께서는 地上에서 공생애 동안 병든자와 약한자를 치료하셨으며, 그의 제자들

에게도 치료하도록 명하셨습니다.⁸⁶⁾

신유은사는 예수가 생명의 주 되심을 제시함과 동시에 복음 선포의 도움을 위하여 나타나는 은사라고 L. B. Flynn은 말한다.⁸⁷⁾

또한 플러신학교의 Wagner교수는 고린도서전서 12장에서 나타나는 신유의 은사는 人間의 모든 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며⁸⁸⁾ 그의 저서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自然的인 人間의 方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健康을 회복케 하시는 중개자로 봉사하는 역량이다.”⁸⁹⁾

그렇다면 신유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理解해야 하나?

눅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께 보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기뻐하며 보고 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能力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귀신이 항복하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 자체에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個人의 구원을 먼저 이루어 그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신유은사가 왜 個人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때 그는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오라고 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때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86) Harold Horton, The Gift of the Spirit (Gospel Publishing House, 1975), p.94.

87) Leslie B. Flynn, 19 Gift of the Spirit (victor Books, 1979), p.170.

88) C. Peter Wagner, Your Spiritual Gifts (Glendale : Regal Book, 1979), p.239.

89) 피터와그너,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2), p. 258.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福音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을 考察해 볼 때 치유는 메시아 임재의 한 특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具體적으로 體驗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치유를 통해서 個人的 救援을 확신시킬 뿐만 아니라 世上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 했던 것이다.

구원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한 체험이듯이 치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方編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복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 구원의 선포라면 치유는 그 구원의 일부이다. 그리스도의 使役이 있어서 說教과 가르침과 치유는 하나였고 자각은 구원의 선포에서 빠뜨릴 수 없는 要素인 것이다.

2. 신유은사의 通路

1) 祈禱를 통한 신유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歷史는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歷史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有益하게 하려 하심이라”⁹⁰⁾

이런 意味로 볼 때 신유의 은사 또한 教會의 有益을 위함이고 이러한 은사는 세가지 면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恩赦의 根源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나타나심이고,

둘째, 모든 恩赦의 目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요.

셋째, 은사는 분명히 有益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오순절 성령의 은사받은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므로…….”⁹¹⁾

우리 또한 기도함으로써 신유의 은사를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다.

90) 고전 12 : 4-7.

91) 행 2 : 41-42.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진지한 奉仕的 義務이며 하나님에 대한 접근과 예배 그리고 계시의 통로이다.

E. M. Bonds는 기도를 定義하기를 “기도란 하나님의 현존을 나의 현존으로 認識하여 그 분에게 나의 모든 必要를 要求하고 그 요구가 충족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열망이다”⁹²⁾고 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특별한 問題를 要請하면 그분이 해결해주실 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러한 기도는 습관적이거나 단순한 암기, 중언부언이 아니라 自己의 全人格을 투자하는 作業이기도 한 것이다.”⁹³⁾

결국 믿음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實現을 기대하는 면에서 경탄할 만한 특권이라면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내손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므로 기도는 믿음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믿음은 기도를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意味에 준하여 신유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 성취된다는 확신 때문에 그 분량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치료된다.⁹⁴⁾고 야고보 저자는 말한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알·씨·에이치·렌스키는 말한다.⁹⁵⁾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자는 치유된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 기도와 치유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教會 지도자들은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병든자를 돌보는 것이 그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한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2) 말씀을 통한 신유

우리는 信仰生活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使用하고 있다.⁹⁶⁾ 예수께서도

92) Ibid., p.20.

93) Ibid., p.10.

94) 약 5 : 15

95) 알.씨.에이치.렌스키, ‘성경주석 : 야고보서’ 진언섭 역(서울 : 백함출판사, 1976), p. 561.

96) 여기서 David Watson은 oros와 heros를 같이 사용한다.

I Believe in Evangelism (Grand Rapids : Eamays, 1976) p.40.

자기의 공생애 가운데서 이 말씀을 使用하여 병든자의 병을 치유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치료했을 때 예수의 말은 그 병을 치료할 만한 能力이 있었던 것이다.⁹⁷⁾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⁹⁸⁾고 하였고 바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歷史하는 힘이 있어’⁹⁹⁾ 그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지대한 歷史가 일어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¹⁰⁰⁾

예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으며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결단해야만 했는데 특히 그의 말이 떨어지자 마자 병든자는 치유되었고 죄인은 용서를 받았으며 마침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¹⁰¹⁾

3) 按手를 통한 신유

구약시대의 안수는 부모가 자식에게 祝福을 상속할때에 實行되었으며(창48 : 14)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하여 훈련시킨 후에 지휘권을 위임할때에도 안수를 使用했고(민27 : 23)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者의 罪를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사람과 그 제물을 일체화시키는 意味로 안수했으며(레1 : 4) 레위인을 선발하여 그 레위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뜻으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다.(민8 : 10)

예수는 이 안수를 자기의 전도 생활 중에서 평이하게 항상 使用하였으며 오히려 병자에게나 어린 아이에게 자기의 손을 얹는 것을 반대하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분을 내면서까지 안수하였다.

이때 예수의 안수는 祝福을 상징하는 안수였다. 신약성서에서‘按手’란 말은 안수하는 손을 하나님의 도구로써 活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안수라는 말은 신약성서에 63회 나타나 있는데 이 말은 “엎는다” “만진다”는 表現으로만 使用되었다. 신약성서에는 머리에나 환부에 손을 대고 문지르는 안찰방식은 나타나지

97) 마8 : 5-13. 98) 요6 : 63하.

99) 살전2 : 13 100) 마13 : 18-23.

101) Merrill C. Tenney,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V (Hagerstown : Zondervan, 1977), p.958.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모든 병자에게 언제나 반드시 안수로만 치료한 것은 아니다.

예수가 병자를 치료할때에 그 병자가 문둥병자이거나 병어리이거나 소경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몸이나 환부를 만지며 자기의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신유의 은사자들이 병든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병을 치료하면 나으리라는 성서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有效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는 안수를 통하여 병이 치료되는 것을 事實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신유의 은사는 말씀과 기도 안수 외에도 여러 通路를 통하여 부여되겠지만 本人은 가장 基本的인 것만을 취급하여 그 重要性을 살펴보았다.

3. 聖靈의 恩赦 危險性

聖靈의 恩赦에 대한 잘못된 理解 때문에 일어나는 세가지 危險性은 다음과 같다.¹⁰²⁾

1) 恩赦에 대한 誤解 때문에 일어나는 危險性

가. 恩赦는 예외적인가? 일상적인 것인가?

문제는 은사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現象인데 그것을 특별하고 기적적이고 감각적인 現象처럼 誤解하기 때문에 잘못 오용될 危險性이 있다는 것이다.

나. 恩赦는 특정한 것인가? 多樣한 것인가?

두번째 誤解는 은사란 여러가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것인데 오직 하나의 어떤 특정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危險性이 있다.

다. 은사는 소수를 위한 것인가? 全體를 위한 것인가?

세번째 誤解는 그리스도의 몸 全體를 위한 것이 은사인데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신분에 있는 소수자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危險性을 내포한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가지로 多樣하게 分配되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공동의 선물임

102) R. S. Anderson, ed.,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Grand Rapids : W. B. Eerdmans pub Co., 1979), pp.479-83.

을 깨달을 때 善用할 수 있게 된다.

신유은사 또한 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각 개인의 信者에게 주는 것임을
우린 알아야 할 것이다.

2) 恩敎 以上の 것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생긴 危險性

F. D. Bruner는 3가지 현저한 問題性을 指摘하고 있다.¹⁰³⁾

가.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以上の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쓸때 문제가 된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축복의 근원인데, (그리스도도 좋지만 그리스도 외에 성령이 필요하다)고 主張할 때 危險性이 있다.

나. 은사받은 이들이 그 以上の 더 큰 능력을 얻으려고 애쓰므로 問題가 생긴다. 그들은 영적인 能力을 받고 교만하게 되며 큰 能力을 추구하고 자신의 能力을 과시함으로써 危險하게 된다.

다. 은사받은 사람들 중에는 항상 더 이상의 증거를 要請함으로써 問題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 신유, 기적 등을 모든 은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危險性이 따른다.

이 모든 것은 聖靈의 恩敎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함을 망각함이요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危險性들이다. 예수의 치유의 目的은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었다. 예수는 병고침 그 자체가 目的은 아니었으며 그 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을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돕는 일이 생긴 것이다.

¹⁰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신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사했으며 예수에게 찾아오는 어떤 병자도 예수에 의하여 외면 당하지 않았으며 또 치료받지 못한 병자도 없었다.¹⁰⁵⁾

103) F. D. Bruner, Theology of Holy Spirit (Grand Rapids : W.B. Eevdmans Pub. Co., 1970), pp.119-29.

104) 눅8 : 1-3.

105) 이창우, 「기독교와 은사활용」(서울 : 한국기독교문화협회, 1980), p.226.

결국 거룩한 의사로서¹⁰⁶⁾ 자기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自身을 드리는 데 치유의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3) 恩赦의 誤用 때문에 오는 危險性

D. Bridge와 D. Phyper는 영적 은사들이 잘못 남용됨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세가지 問題點을 指摘하였다.¹⁰⁷⁾

가. 落心과 嫉妬

은사들이 교회안에서 행해질때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질투하게 된다는데 危險性이 있다.

나. 利己心과 교만

教會안에서 여러 은사를 행할때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대하여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갖고 自身을 과대평가하며 남을 과소평가한다는데 問題가 있다. 특히 성령 세례의 표적이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主張하는 이들은 방언 은사를 못받은 이들을 성령세례도 못받고, 거듭나지도 못했다고 과소평가함으로써 危險性이 따르게 된다.

다. 無秩序와 혼란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은 질서대로 하고 방언은 특별히 통역하는 者가 없으면 혼란을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남용으로 教會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危險性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꼭 같이 따르는 危險性이다.

신유은사 또한 그 예외는 아닌 것이다. 베드로도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면서 그는 主張하기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完全히 낮게 하였다고 선언하였다.¹⁰⁸⁾

106) 바클레이, 「예수의 칭호 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79), p.111.

107) D. Bridge & D. Phyper, pp.113-16.

108) 행3:16.

우리는 치유에는 사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은사를 활용한 것을 보더라도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치유가 억지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나타나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第4章 教會行政의 民主化 實踐方案

教會行政의 民主化 실천방안을 教會行政의 人間화와 教會行政의 봉사화, 教會行政의 활성화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특히 교회행정 of 활성화 방안을 理解하기 위해 한국장로교의 성장 현황을 教會의 理解편에서 살펴보았음을 밝힌다.

第1節 教會行政의 人間化

1. 神의 權威

해방신학자 보프는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올바른 관계를 실천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고 말한다.¹⁰⁹⁾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自身の 일, 그의 나라, 그의 뜻, 그리고 그의 이름에만 관심하기를 원치않으신다.

人間의 일, 人間의 欲求, 굶주림, 보호와 구원에의 절박한 필요 등에도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人間이 여기 땅위에 存在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人間 自身들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진전시켜 말하기도 한다.¹¹⁰⁾

그러나 보프의 이같은 解釋은 인간에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따로 人間 따로 분리될 위험도 없지 않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성육신의 형태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때 고난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동시에 선교적 생활은 선택과 증거와 봉사, 他者에로의 자기 동일화(self-identification), 그리고 고통의 형태를 말하는데, 선교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他者를 위하여 자신의 生命을 바칠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받아 “죽는 생활”(dying-life)인 것이

109) L. Boff, op. cit., p.15.

110) Ibid., p.132.

다. 바로 이것이 人間世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계시인 生의 形態이다.

111)

2. 人間の 權威

필자는 하나님의 形象에 대한 관심에서 먼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적 意味를 찾아보았다. 그래서 원형적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앞에서 피조물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다른 인간과 협력하는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자연을 위임받은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누어 理解했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계는 개별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理解하여, 어느 한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도 동시에 깨어지는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을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으로 보고, 역시 성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하나님의 형상, 다른 人間과의 관계를 단절한 하나님의 형상, 자연과의 관계를 단절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과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존 칼빈, 디트리히 본헤퍼, 칼 바르트 그리고 위르겐 몰트만을 통해 알아 보았다.

존 칼빈은 신인 동성 동형론(神人 同性 同形論)을 거부했고, 디트리히 본헤퍼는 존재유비에서 관계유비로 전환시켰으며, 칼 바르트는 한 단계 進展시켜 하나님의 人間性까지 수립한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몰트만은 人間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죄인으로 규정하여, 하나님의 人間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人間の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죄인으로 이해했음을 알아보았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제 멋대로 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可能性을 허락하셨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에다 예수님의 삶과 특히 주기도문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可能性으로 許諾하셨던 것이다.

現代는 날로 無神의 世界가 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認定하지

111) Davies, op. cit., p.36.

않는 현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은 이웃 人間을 認定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인은 이웃 人間을 認定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과의 공존 이전에 고식적인 自己 利益에 몰두한다. 내일을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에만 만족하는 것이 現代人의 모습이다.

現代는 人間과 人間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世界가 되고 있다. 억압하는 자들은 환상적인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고 있고, 억압받는 자들은 모든 것을 투쟁과 폭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알량한 양심을 건드리는 귀찮은 존재로 이해된다. 기껏해야 하나님은 자신의 6일간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는 일요일만의 주님으로 변질시킨 것이 現代人의 모습이다.

또한 경쟁과 대립속에 사는 人間들에게 자연은 公有해야 할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에 의해 언제든지 독점될 수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 따라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던 자연이, 힘있는 자에게는 부유한 양식으로, 힘없는 자에게는 결핍된 양식으로 변질될 것이 現代人의 모습이다.

現代는 人間이 다스리던 자연에 의해 人間이 다스려지고 있다. 自然의 고갈과 재해속에서 인간은 生存을 위한 투쟁에 삶을 몰두하고 있는 것이 現代人의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각박한 현실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며, 이웃과 대화하여 人格的인 관계와 협동하는 關係를 수립할 餘裕가 없는 것이 現代人의 모습이다.

만일 現代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現代는 완전한 자멸에 빠지고 말 것이다.

3. 神 絶對的 權威와 人間の 權威의 區別

1) 하나님 나라와 世界

성서가 메시아의 성취에 대하여 언급할 때 주요 관심사는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영광스러운 주님은 그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오

셨으며 역시 世上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여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서로 관계를 갖게 된 世上은 하나님이 메시아적 概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歷史의 意味가 되는 것인데, 즉 마지막때까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福音을 전파하는 것이다.¹¹²⁾ (마24 : 14).

콕스는 성서가 말하는 世界의 意味를 네가지로 주장한다.¹¹³⁾

첫째로 이 世界는 신에 의하여 창조되고 유지되고 심판되며, 신의 수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이 世界는 신의 사랑과 관심의 對象이라는 사실이다. (요3 : 16-17). 신은 教會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다. 예수는 이 世上에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셨다. 그는 상호 의존과 상호작용의 人間世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는 人間 存在에 의하여 性格지어진 世界에 들어오신 것이다. 즉 신이 自身과 더불어 화해하신 것이 바로 이 世界이다. 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계와 自身을 화해시키는 것이요, 教會와 화해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教會는 이 世界를 사랑하고, 살고 죽는 問題로 이 世界에 대하여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위하여 이 世界로 가는 것이다. 결국 이 世界는 신의 사환의 관심의 대상이요, 그의 사랑과 그의 혁신적인 行動의 對象이라는 事實이다.

세째로, 이 世界는 神의 해방과 혁신적인 行動의 영역이라는 事實이다.¹¹⁴⁾ 神의 혁신하는 행동, 해방하시는 행동의 영역은 교회가 아니라 이 世界, 이 정치적인 世界이다. 教會는 이 세계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이 解放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등을 돌리는 일은 신이 활동하시고 계신 곳에도 등을 돌리는 것이다.

네째로, 이 世界는 크리스찬의 生活의 적당한 場所이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場所이다. 이 世界는 아담이 수행할 과제를 가졌던 곳이요, 예수께서 직무를 지셨던 곳이요, 教會의 선교 場所이다. 즉 이

112) J. K. Hoekendi op, cit., p.30.

113) H. Cox God's Revolution and Man's Responsibility, Glendale ; Regal Book 1976. pp. 25-36.

114) COX가 여기에 말하는 세계는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세계를 의미한다.

世界는 크리스찬들이 파견된 場所이다.

“너희는 온 世上에 가라”(마16 : 15), “내가 아버지께 구하옵는 것은 그들을 世上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었고, 오직 악한자에게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옵니다”(요17 : 15)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이 世界 안에 現存하게 되는 唯一한 길이다. 이와같이 신은 全世界를 所有하시며 教會가 아니라 이 세계가 신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그는 그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世界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서 콕스는 結論지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계의 재건과 혁신을 두 어깨에 책임을 걸머지기 위하여 이 世上을 사랑하고 그것도 함께 지내도록(stay with it)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神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다.”¹¹⁵⁾

이렇게 볼 때 教會는 世上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의 부분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범위에서만 참으로 教會가 되는 것이다. 教会는 오직 “에큐메니칼”, 즉 온 世上을 지향하는 이외에 다른 存在 방식은 없는 것이다.¹¹⁶⁾

世上에 대해서 호켄다이크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신약성서에는 世上이란 전적으로 자력에 의존하고 福音의 절대자로서 등장하는 이방인의 사회, … 멸망하도록 결정된 全人類를 意味한다. 바로 이 世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다.

世界(Kosmos / Oikoumene)와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관계에 놓여있다. 즉 世界는 하나님의 위대한 活動 무대인 통일체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화해된 世界요(고후5 : 19),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世界요(요3 : 16), 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승리한 世界이다(요16 : 33), 世界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겨진 밭이요(마13 : 39), 따라서 世界는 하나님 나라의 福音을 선포하는 무대인 것이다.”¹¹⁷⁾ 이렇듯 하나님 나라와 世界는 불가분리적인 것이다.

초대 教會의 선교에는 온 世界를 지향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活動은 언급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은 問題도 되지 않았다. 신약성서 안에는 통일체로서의 세계가

115) H. COX, op. cit., p.52.

116) J. K. Hoekendi op. cit., p.39.

117) Ibid., pp.39-40.

하나님 나라와 대치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重要한 사업이다. 그것은 교회의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인 것이다.

教會는 世界를 위해 있는 것이다. 教會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려 할 때에만 福音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전9 : 19-22). 그러나 教會는 자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세계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요 또한 도구인 것이다.¹¹⁸⁾ 즉 教會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다. 마치 소금이 바닷물 전체에 퍼져있는 것과 같이 世界에 대한 열렬한 관심은 교회의 모든 표현속에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¹¹⁹⁾

그래서 크레머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극을 위한 극장이며 目的이다. 世界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또한 그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¹²⁰⁾라고 말한다. 때문에 教會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 자신이 이 세상의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 오셨고, 이 世界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 歷史의 中心이며, 이 世界의 唯一한 희망이시다. 그는 이 世界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신 분이며, 이 세계의 왕이요, 심판자이며, 이 세계를 혁신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화목케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온 세계에 보내셨다는 선교적인 使命을 끊임없이 想起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 世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 피조물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人間의 참여와 협동을 표시하는 일터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로 선포된 하나님의 영토이다(마6 : 10).

때문에 基督教人으로서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는 教會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子女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다.

118) Ibid., p.42.

119) Ibid., p.42.

120) Ibid., p.203.

2) 世上을 섬기는 教會(人間的 教會化)

教會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教會는 世界를 위하여 世界人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다. 教會는 世界에 대한 봉사와 증거라는 관계에 대립하고 있다. 이 증거와 봉사는 이 세계의 주인이면서 또한 世界를 위한 사도이며 종이신 그리스도의 한 반영인 것이다.¹²¹⁾

그런데 증언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봉사는 또한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증언과 봉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이다. 이 교회의 증언과 봉사는 것은 단순히 이 世上과 이 世上의 方法이나 욕망에 적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참된 必要와 곤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을 意味한다.¹²²⁾

그러므로 이 증언과 봉사는 세계를 위한 봉사와 증언이다. 즉 教會는 人類와 世界를 봉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특권을 받은 선택이 아니라 봉사에 헌신하는 선택이다. 교회는 세계가 자기의 참 存在를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生存한다. 그것은 “부분은 전체를 위해 있다”(pars pro toto)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책임을 要求하는 세계의 제 상황을 탐색해야 하고 거기서 평화(shalom)를 선언하고 지적해야 한다. 그리고 教會는 하나님의 관심이 認定되고 축하되는 場所인 세계의 일부이다.

教會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딤후2:3) 세계와의 관계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이 事實은 교회의 존재가 모든 사람을 위한(pro-existence)것임을 확증한다. 世界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의 견지에서 볼 때, 教會는 世界의 일부분이요 후기(posts cript)이다.

다시말하자면, 教會는 그리스도이 現存과 전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속죄를 지적하고 축하할 目的으로 世界에 첨부된 것이다.¹²³⁾ 때문에 教會가 世界를 정복할 수는 없다. 다만 世界속에 침투하고 세계와 교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121) Ibid., p.204.

122) Ibid., p.206.

123) J. K. Hoekendi op. cit., p.77.

않으면 안된다.

고전 12장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창조적 사실이며, 이 구속자요 화해자인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을 통하여 세계에 봉사하기 위하여 세계로 들어오신 것이다.

호켄다이크는 이것을 메시아적 공동체(Messianic Community)로서의 교회로 표현하고 그 근거를 빌2:5 이하에서 찾는다.¹²⁴⁾ 그리고 메시아적 공동체의 원형을 “자신을 비우는 것”(self-emptying), “봉사”(service), 그리고 “인간과의 유대감”(solidarity with the people) 등이 세가지 말로서 설명한다.

즉 教會는 自己自身을 비우고 자기자신을 無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메시아-종(Messian-Servant)을 본받는 전적인 봉사, 그리고 그 봉사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同僚들과의 유대가 설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實際적으로 구현되는 그곳에 존재한다.

그것은 Diakonos 곧 종되신 그리스도가 教會의 主人이요, 또한 世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生活과 교훈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는 이 세계 안에 확립되었으며 또한 活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난의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거룩한 세계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의 세계이며 이 세상에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종의 세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봉사가 그리스도께서 이 世上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유일한 存在 이유도 물론 이 봉사이어야 한다. 즉 教會는 다만 그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또한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크레머의 표현대로 教會의 참된 정신과 형태로서의 봉사는 그 근거를 教會의 主人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人格과 업적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¹²⁵⁾ 그러므로 教會

124) Ibid., pp.77-78.

125) Kraemer, op. cit., p.164.

는 이 事實을 전하는 자요, 또한 실천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즉 선포와 증거라는 이 두 사실은 教會가 이 世界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기 위하여 가장 重要한 것이다.

第2節 教會行政의 奉仕化

1. 社會 糧食을 위한 祈禱

양식은 그 떡으로서 유대인들이 먹던 보리떡을 意味한다.¹²⁶⁾ 이것은 엄밀한 意味에서 볼 때는 관사가 붙었으므로 그 떡 즉 한개의 떡을 意味하기도 한다. 이 떡을 해석함에 있어서 육적 양식, 영적 양식,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 등의 見解가 있으나 육적 양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본다.¹²⁷⁾

이것은 육신의 수용을 위한 기도로서 육신의 떡과 양식을 구함인데 잠30:8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와 동일한 內容인데 기도자가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生活에 다음과 같은 책임들이 따른다고 본다.

1) 糧食을 위한 祈禱 責任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위하여 기도함이 비신앙적 태도라는 생각도 하지만 주께서는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다. 창28:20에는 야곱이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도 나온다.

126) 김승교, 「前揭書」 p.154.

127) 이상근, 「前揭書」 p.118.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와 예수께서 목숨을 위해 먹을 것과 몸을 위해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별개의 問題라고 본다.¹²⁸⁾

2) 肉身의 管理 責任

아담의 타락후 구약시대 성도들은 人生의 육체를 확대하였던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예수의 수육과 부활후에는 우리의 육체에 관한 새로운 概念이 형성되었다. 예수의 수육후에도 가현설파(假現說派)나 일성론의 主張으로 육체를 확대하고 경시하기도 했으나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여지는 귀한 것¹²⁹⁾임을 일용할 양식의 간구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

2. 社會 救援을 위한 教會行政의 公平性

굶주린 자는 먹을 權利가 있다. 世上에 가장 큰 슬픔이 배고픈 것이다. 언젠가 한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려 먹을 것이 없어 집단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얼마나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모른다.

우리 주변에는 실직과 생활고로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형제나 이웃은 없는가? 우리가 두고 온 모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 어느 한 구석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만일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들을 위해 혹은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랑 없이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自身을 속이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僞善의 罪를 범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結論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問題를 어떤 자세로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1) 하나님은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128) 이동원, 「前揭書」 pp.94-95.

129) 최기채, 「前揭書」 pp.189-190.

깨달아야 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물질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분으로 착각을 한다. 그리스도인이 物質的인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신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웨슬레는 “가능한 많은 돈을 벌라.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쓰라”고 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위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어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잘살고 멋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健康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양식 즉 재물이 인생의 目的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양식이 目的이 될 때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 교포들의 큰 문제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 즉 그날에 족한 양식을 구하는 태도가 아니다.

(3)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러한 일을 추구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태도는 바른 정신이 못된다.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 하셨다. 게으른 사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빵을 얻고 재산을 모으려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다.

체스터 에멀슨은 이렇게 읊었다.

내가 빵을 구했으나
생은 나를 밭으로 이끌어
연장을 들게 하고
빵을 얻을 때까지 수고하라고 했네
나는 마실 것을 구했으나
생은 나를 모래 벌판으로 이끌어 내서
눈물없는 슬픔처럼 메말랐을 때
내게 동정의 샘물을 찾게 했네.

얼마나 귀중한 내용인가? 빵을 거저 얻은 것보다 빵을 재손으로 벌 수 있는

수고의 은사는 더 귀한 축복이다. 자기 중심의 쾌락과 안일보다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동정이 얼마나 더 귀한 은사며 축복인지 모른다.

(4) 그렇지만 또한 양식이 우리의 노력의 댓가만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수고의 열매 이상으로 하나님의 祝福과 은총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가 먹는 쌀은 농부들이 수고해서 결실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농부의 수고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며 자라고 열매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속에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스런 크리스찬은 모든 좋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란 것을 아는 청지기 人生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5) 이 기도는 그날의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智慧(즉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만이 바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이다. 그날의 양식 이상을 구할 때 자칫하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보다 가치있는 人生의 目的을 잊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6) 끝으로 이러한 기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되겠다는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¹³⁰⁾

특별히, 함께 잘 사는 그러한 공평한 사회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다짐과 투쟁정신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때 이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형식적인 바리새인으로 만들며 종교적 공염불자가 되게 한다. 아니 그 以上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罪가 되는 것이다.

第3節 教會行政의 活性化

1. 새로운 人間性的의 理解

흔히 試驗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說明한다. 하나는 파괴적인 것이고 다른

130) 박희만, 「주기도문 강해」(서울:보이스사 1984), p.184-185.

하나는 건설적인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구별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는 시련적인 것(test)이고, 다른 하나는 유혹적인 것(tempt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人間에게 주시는 試驗은 어디까지나 시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試驗을 통해 그의 人格이 더 고상해지고 그의 信仰이 성장하며 더 큰 祝福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데 目的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한다. 그것은 학생들의 실력을 저울질해 보려는 目的도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게 하는데 더 큰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 된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을 가할 때가 있다. 매를 맞는 일은 기쁜 일은 못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증거이다. 그릇된 生活에서 돌이켜 축복된 생활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이다.

희망이 없는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아예 관심밖으로 버려두게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채찍이 아니라 아예 관심 밖으로 내버려 두는 일이다.

여기에 비해 마귀의 試驗은 유혹적인 것이다. 이러한 유혹적인 시험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시험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적인 시험을 이겨야 한다. 이 試驗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 人間은 두 번 살 수 없는 일회적인 삶을 살아간다. 일회적 인생길에서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비극을 안게 다 주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저지른 罪 때문에 一生을 눈물로 지내며 한 번 유혹에 빠진 과오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비극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유혹적인 시험을 피해야 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키에르케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악마는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시련적인 것이든, 유혹적인 것이든 우리가 싸워 이기면 祝福이 되지만 싸워서 지면 화가 된다고 말했다.

야고보 선생은 試驗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기록된 도키모스로서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다. 또 다른 하나는 1장 13절에

있는 페아조메느스로서 이것은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다. 그의 표현대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内部에서 오는 시험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외부에서 오는 試驗은 다음과 같다.

(1) 제일 먼저 환경에서 오는 시험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환경의 支配와 影響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環境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試驗이다.

아담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브로부터 試驗을 받고 넘어졌다. 부모형제나 처자식 또는 친한 친구를 통해 오는 시험이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10 : 36)

다음으로 내부에서 오는 試驗은 다음과 같다.

(1) 욕심에서 오는 시험이 가장 큰 試驗이다.

이 시험에 깊이 빠지게 될 때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릇된 것을 옳은 것으로 보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2) 호기심에서 오는 것이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이 호기심 때문이다. 남들이 모두 하나까 나도 좀 해봤으면 하는 호기심에서 술, 담배도 하고 마약도 하게 되며 理性的인 탈선도 하게 된다.

청소년 때는 그런 것을 못하면 自己만 병신같고 못난이처럼 느끼게 된다. 또 친구들이 그런 경험을 말할 때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 동류(peer)그룹에 끼어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영웅심과 호기심의 노예가 되어 나중에는 헤쳐나올 수 없는 무서운 유혹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본다. 이처럼 人間은 外的인 유혹과 內的인 유혹에 의해 試驗에 빠져들게 된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人間이 試驗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外部的 要素와 内部的

要素가 서로 마주치게 될 때 시험에 빠져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약점이 외부적인 유혹에 매치가 될 때 그만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

만일 내적인 힘이 강하면 설령 외적인 유혹과 자극이 좀 있더라도 그 환경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¹³¹⁾

결국 人間性 존중의 實踐運動은 教會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實踐하신 박애성은 사랑으로써 이것은 실천을 위한 수단방편이며 이것은 속성인 줄 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이다.(요소이다) 즉 실천의 도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본래 目標이다. 하나님 뜻을 이룩한 한 부분인 것이다. 하나님이 人間の 目標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해 人間性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2. 教會의 理解

1) 教會의 意味

성경에서는 教會를 두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그 하나는 假見的 教會와 다른 하나는 不假見的 教會이다. 가건적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교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성별하심에 의해 그리스도의 참 지체가 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을 意味하는 것이고, 불가건적 교회는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면서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고백하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¹³²⁾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전해지고 성례전이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대로 집행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存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건적 教會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보인다는 事實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人間的인 觀點에서 “教會”라고 불리우는 가건적 교회를 우리는 존중해야

131) 「前掲書」 p.213.

132) John Calvin, Instrtues of the Christion Religin4,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60) p.60.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¹³³⁾

理想形 으로서의 교회는 힘차게 움직이는 共同體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교회는 역사의 현장에서 歴史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용기있게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⁴⁾

하나님의 선교에 용기있게 동참한다는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그리고 섬김을 받던 교회에서 봉사하는 教會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會는 세속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인간화의 현상과 問題를 직시하고 그 現狀의 배후에 있는 근본 원리를 찾아 내고 그 구조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¹³⁵⁾ 이로 인해 教會의 참된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教會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世上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義務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회의 언어, 예배, 조직과 삶의 형태들과 더불어 사회변화를 考慮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¹³⁶⁾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교회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사회의 환경에 의해 고립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선교의 使命과 봉사의 使命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教會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그 기대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교회의 상황이 변하고 그러므로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재산과 힘을 가지고 사회 속에 존재한다. 높이 솟은 종탑에서, 웅장함을 자랑하는 교육관과 부속 건물에서 우리는 교회의 힘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힘은 언제나 일정한 날과 시간에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곳에 들어오는 소수의 무리에게만 필요로 되어지는 힘인 것도 우리는 또한 느낀다.

133) Ibid., p.60.

134) 한완상, 「前揭書」 p.130.

135) 「上揭書」 p.131.

136) J. Moltema, 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Munchen : Chr. Kaiser Verlag, 1975) p.120.

위에서 살펴본 理想形의 教會와는 거리가 아주 먼 참자는 거인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곁에 서 있는 교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教會가 오늘날 教會를 멀리하고 이웃 위에 군림하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좁아진 성전만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教會로부터 선교를 理解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부터 教會를 理解해야 하는 것이다. 福音의 전파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信仰을 강하게 하는데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언제나 비그리스도인들의 부름에 봉사하는 것이다.

2) 韓國教會의 現況

現代 世界는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따라 韓國의 牧會狀況도 도시화와 함께 폭넓고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教會는 전례없는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장년 출석만 천명이 넘는 教會들이 많아졌고 서울만해도 한 교회당 평균 신도수가 520명에 이르렀다.

〈표4-1〉에서 한국 기독교의 교회수와 교직자수 신도수의 83년부터 87년까지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³⁷⁾ 또한 〈표4-2〉에서 77년도부터 86년간의 한국장로교성장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7) 박양조 책임편집, 기독교 대연감, 기독교문사, 1989. p.16.

(1) 韓國基督教의 現況

〈표4-1〉 한국기독교의 교회수와 교직자 및 신도수

교 회 수	교 직 자 수	신 도 수	문공부 발행
23,246	32,794	7,180,627	1983. 10. 31.
24,237	33,697	7,387,461	1984. 10. 31.
24,262	34,607	8,102,218	1985. 10. 31.
27,486	39,812	8,753,348	1986. 12. 31.
30,321	48,334	10,337,075	1987. 12. 31.

〈표4-2〉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세표는 다음과 같다.

년 도	노회수	시무목사수	시무전도사수	기존교회수	개척교회수	교 인 수
77	30	1,615	1,941	2,930	219	757,845
78	30	1,727	2,057	2,961	159	811,737
79	30	1,918	2,195	3,068	475	902,125
80	30	2,062	2,162	3,198	457	969,402
81	34	2,249	2,392	3,357	356	1,115,548
82	35	2,250	2,744	3,444	283	1,263,215
83	37	2,350	2,813	3,588	283	1,307,351
84	41	2,491	3,008	3,668	320	1,373,594
85	44	2,810	3,242	3,843	271	1,400,167
86	44	3,037	3,307	3,930	240	1,477,740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회의록)

(2) 한국장로교의 성장 현황

한국장로교의 성장과정을 도표로써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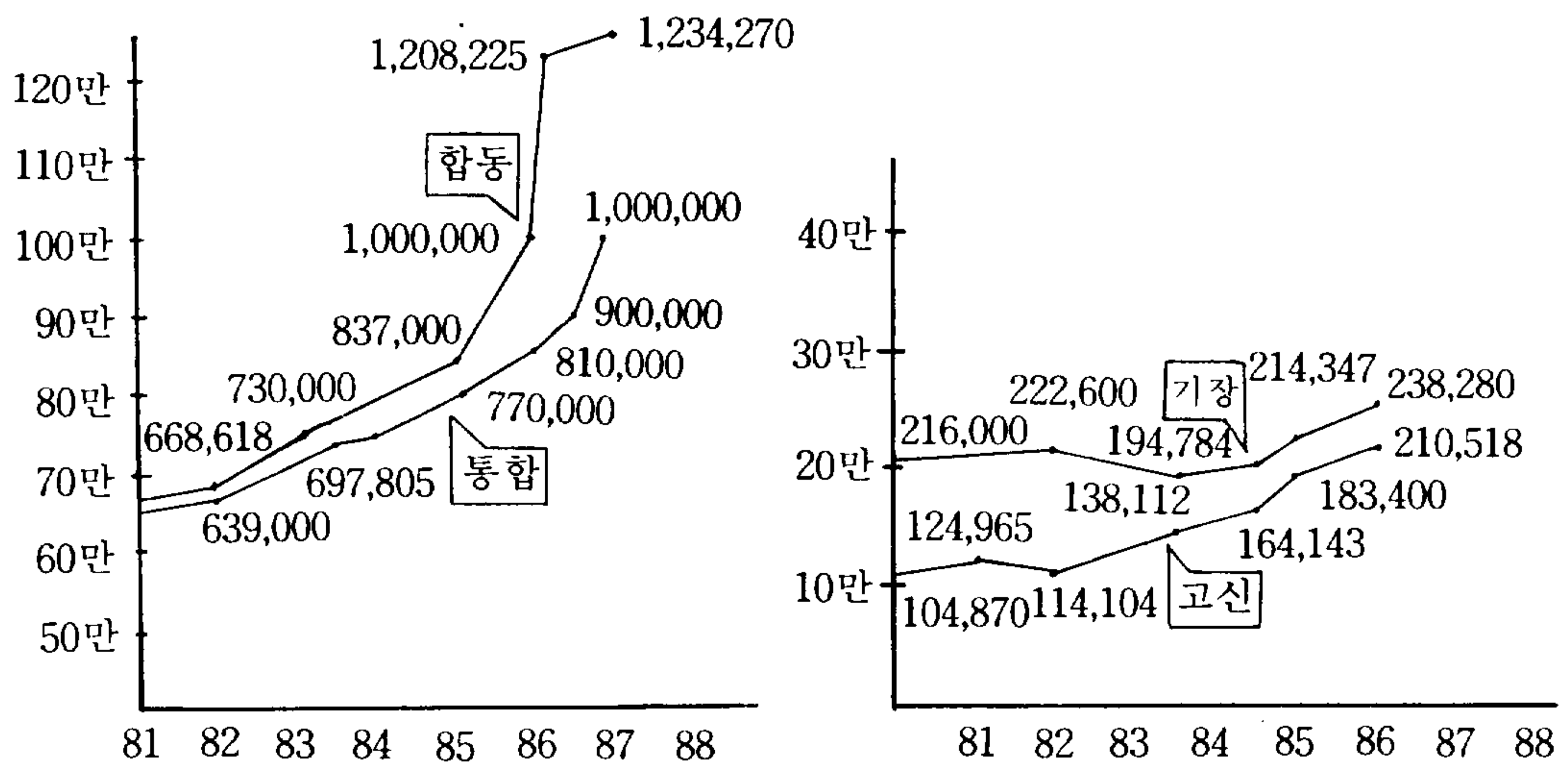
1) 장로교의 성장 현황

〈표4-3〉 장로교의 교회현황 및 성장

교 단	교회수	교직자 (목사)	신도수	교 단	교회수	교직자 (목사)	신도수
합 동	3,529	2,194	1,389,200	대 신	367	318	97,750
통 합	3,713	2,416	1,089,300	호 헌	215	206	53,750
기 장	892	715	255,030	장로회예신	488	450	89,600
고 신	703	480	210,900	개 혁 과	216	217	64,800

(1986. 1. 1. 문공부 통계)

〈표4-4〉 1981-1988 4개 장로교 성장표



(88년 12. 31)

〈표4-5〉 장로교의 통합측의 연도별 성장

연 도	교 회 수	신 자 수
1982	3,826	1,249,146
1983	3,924	1,329,217
1984	4,076	1,431,273
1985	4,252	1,478,217
1986	4,272	1,493,361
1987	4,373	1,531,462
1988	4,479	1,632,934

이상에서 관찰해본 결과로 장로교는 꾸준한 성장 현상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장로교의 4교단을 살펴볼 때 극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신과 기장은 침체현상을 보여주었는데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전승하는 보수주의 교단인 합동은 가장 많은 성장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합측 교단 역시 위의 도표와 같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회 성장에는 분열이 있는 반면 성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음을 위의 도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표4-6) 한국 개신교 장로회 교단별 종합교세현황

교 파	교 단	교단장	교단창설 인 도	교회수	교직자 수			교인수
					남	여	계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 혁 1)	윤남중	1981	1028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 혁 2)	양세복	1981	348	411	53	464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정통)	방부신	1979	174	120	54	174	18400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 려)	김태윤	1974	121	221	31	252	28025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 신)	박두옥	1907	*1011	1424	168	*1592	*259838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보 수)	조창현	1967	*68			*109	*10623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보 수 측)	연면흠	1963	*72	*157	95	*252	29055
장 로 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김대형	1983	*408	424	38	*462	101107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장 신)	전요한	1967	*114			*115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장신)	길영복	1955	*115	149	76	*225	*30048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재 건)	박성규	1948	107	102	10	112	20472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 통)	양정섭	1966	*38	27	11	* 38	*12300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동 합)	김형태	1907	3161			3621	1517020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	김길현	1907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전순기	1979	259	370	144	514	36477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	홍찬환	1976	461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강재원	1962	240	214	92	306	34036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협 동)	오경신	1973	*258	257	263	520	*70010
장 로 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총교회	백영희	1966	115	120		120	135116
장 로 교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원형	1907	1066	1904	309	2213	295333

교단의 최신현황 통계가미비, 1988년본<기독교대안감>의수록통계를 취한것임.

*문화공보부발행<총무행정자료, 1988. 6월>의수록통계를 취한것.

(표 4-7)

한국종교별 신자통계 AD 1900-2000年

종교 \ 연도	1900		1970		1975		1980		2000	
	신자	%	신자	%	신자	%	신자	%	신자	%
부속종교	6507300	81.3	11806000	38.4	10835400	31.9	9715400	25.9	6768700	130
기독교인	42700	0.5	5828000	19.0	8489700	25.0	11409800	30.5	21607300	416
프로테스탄트	6500	0.1	2150000	7.0	3191200	9.4	4455800	11.9	8319700	160
로마카톨릭	36000	0.4	1002000	3.3	1222200	3.6	1460300	3.9	2547900	4.9
성공회	100	0.0	40000	0.1	46000	0.1	53000	0.1	75000	0.1
등록교인	42700	0.5	4884884	15.9	7381900	21.7	10145800	27.1	19230000	385
불교	800000	10.0	5069000	16.5	5432000	16.0	5804000	15.5	6760000	130
유교	640000	8.0	4516000	14.7	4753000	14.0	4980000	13.3	5356000	103
신원종교	10000	0.1	3380000	11.0	4277600	12.6	5317100	14.2	10400000	200

(표 4-8)

한국종교별 교세 현황

구분 종교별	교단	교당	교직자	신도수	비고
개신교	74	30,321	48,334	10,337,075	
천주교	1	2,367	6,606	2,312,328	
불교	18	8,101	22,109	14,813,675	
유교	1	231	17,477	10,184,975	
천도교	1	290	4,902	1,079,901	
원불교	1	384	9,069	1,098,537	
대종교	1	80	255	507,533	
기타	10	1,389	13,280	3,1127,251	
계	107	43,163	122,032	43,420,774	

(1988年 現在)

이처럼 교회수와 교직자수 신도수는 해마다 성장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教會는 그 조직과 行政面에서 중세기적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학교 교육 현장을 보아도 2-30년 전의 유년주일학교와 달라진 것이라고는 손유희 밖에 없는 것 같다.”¹³⁸⁾는 표현은 교회교육 측면만 옛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韓國教會 現實은 선교 초기의 사고방식, 지도방법이 별로 변함이 없이 오늘에까지 유지되어왔고 새로운 갱신을 할 수 있는 행정력도 없었기에 어떤 教會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답습하고 있는 形便이다.

이런 現像에 대한 요인은 교회는 급성장하는데 신학교육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고로 行政的인 훈련없이 배출되어 전통과 경험, 시행착오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¹³⁹⁾

또한 韓國 教會의 성장은 행정력의 보완없이 인물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牧會者의 설교유형에서 성장이 되고 목회자의 아이디어에서 성장이 되었으므로 목회자가 바뀌거나 教會가 어느 수준까지 부흥된 뒤에는 이를 감당할 행정력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성장이 정체되는 現像이 생기게 되었다.¹⁴⁰⁾

허명은 韓國教會의 行政에 대한 問題點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교회행정을 자체평가한 바에 의하면 89.7%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행정능력이 사회보다 뒤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⁴¹⁾

또한 牧會者들은 教會行政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면서 설교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없고 업무도 과중하며 時間도 늘 부족한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⁴²⁾

138) 김영호, 교회교육행정 (서울: 종로서적, 1985) p.5

139) 한학수, 「前揭書」, p.68.

140) 한경철, 「前揭書」 p.226.

141) 허 명, 「前揭書」, p.31.

142) 「上揭書」 p.33.

3. 教會의 地域社會 參與

教會는 선교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 존재이유가 있다.

그러한 선교는 바로 지역사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 대상은 그 지역의 주민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개발과 교회와의 관계, 지역사회개발에 미치는 教會의 影響은 어떤 것일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社會事業

韓國教會는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社會事業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병약자, 노약자, 정신박약자, 나환자, 맹인과 고아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시작한 것이다.¹⁴³⁾

즉, 선교사들의 본국 교회로부터 헌납되어온 구호양곡과 의류 및 의약품 등 많은 구제품으로 고아나 난민들을 구제한 한국교회의 貢獻은 실로 크다.

특히 전후 버림받은 고아들을 위해서 기독교 아동복지회, 선명회, 김패손 등의 고아사업 및 양자 입양 運動은 전후 사회의 혼란 수습을 위해 큰 役割을 擔當했다.

(1) 홀트아동복지회 : 홀트아동복지회는 국내의 아동복지 사업의 역할을 50% 이상 담당하고 있다.

이회는 미국의 오리건(oregon)주의 평범한 농부이자 목재상이었던 '해리 홀트'씨가 6.25 전쟁으로 많은 한국 아동들이 부모와 가정을 잃고 거리를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1955년 8명의 혼혈고아를 입양했고 1956년부터 본격적인 입양사업이 시작되었다.

매달 평균 300명의 아동이 입소하여 이들중 국내외로 50여명 정도가 입양된다.

(2) 기독교아동복지회 : 1948년 미국의 '밀스' (Milse)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6.25 동란으로 속출한 전쟁고아를 도우려는 미국, 캐나다 등지의 수많은 기독교인 후원자들의 사랑어린 참여에 의해서 본격적인 아동복지 活動을 展開하기 시작했다

143) 「上揭書」 p.21.

다. 기독교 아동복지회는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자립의 길을 찾아 가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3) 세계기독교 선명회 : 1950년 9월 미국의 ‘밥 피얼즈’ 박사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한국지부는 1953년 5월에 설치되었다. 개설 당시에는 1,600명의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했으며 매년 300명씩이나 증가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약 20,000여명의 어린이가 도움을 받고 있다.

선명회의 한국에 대한 원조사업이 한국의 정치, 경제적 現實의 특수한 사정으로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한 사회복지 분야에 큰 貢獻을 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밖에도 한국기독교 가정복지회, 한국루터교 선교 재단, 기독교봉사회, 크리스찬 사회복지회 등이 우리의 주위에서 빛과 소금의 役割을 감당하고 있다.

과거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問題는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계층간의 渴慕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에 교회는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關心을 갖고 돌보아 왔다.

이제 선교 2세기를 맞으며 이러한 사업은 국내 中心에서 해외로 그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985년판 한국사회복지 총람에 수록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는 대단하다. 한국사회사업 시설 연합회의 400여종시설 중 기독교가 361개로 으뜸이고 천주교가 23개 그리고 불교는 원불교를 포함해서 5개 시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성해야 할 점도 여러가지가 있다.

아직도 우방의 교우(交友)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우리 自身이 너무 커버렸고 또한 이 땅의 고아나 과부들의 생계문제는 한국교회가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韓國教會가 고층화 되어가고 生活이 향상되어가는데도 우리의 問題를 남에게 의탁하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問題이다.

그러므로 教會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호 기금, 자발적인 봉사, 환자심방, 기도회를 통한 위로, 양로원, 보육원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사회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欲求를 충족시키도록 힘써야 한다.¹⁴⁴⁾

144) 박영호, 「前掲書」 pp.31-32.

이것이 바로 봉사의 정신을 소유한 선교의 본질이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한 연합적인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병원, 양로원, 육아원, 보건소, 휴식의 집, 상담소 등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設立하고, 運營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의 姿勢를 갖추어야 한 것이다.

4. 教會行政의 能率的 運營

教會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지상의 기지로서 그 重要性은 매우 크며, 이 福音전파의 기지는 世上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속에 存在한다는데 그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

이런 觀點에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상적인 여러 환경과 상황을 고려치 아니하면 안된다.

韓國의 教會는 현재 기독교인의 수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규모에서 날로 대규모화 되고 있지만 증가된 敎人을 적절히 수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運營할 수 있는 현실적인 組織이 아직 연구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현 實情이다.

또한 교회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할 행정능력의 부재에 있다는 사실을 본 論考에서 知的하였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설교나 예배준비만 치중하고 실제 교회 행정에는 별로 關心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상황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行政 組織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교회행정가가 필요하며 이의 양성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이에 따른 教會 行政 組織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계속적인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教會라는 교회만능주의적 사고를 탈피하고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을 다하는 教會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教會行政이 목회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임에 대하여 앨빈 린그렌은 교회行政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열거하면서 오늘날 목사는 행정가로서 기관장으로서의 수완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한 설교 준비에 時間을 할애하지 못하

여 설교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큰 고충이라고 말한다.¹⁴⁵⁾

정장복은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3편 이상의 설교를 해야하며 1년이면 156회 설교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¹⁴⁶⁾고 하며 說教現場에 대해서도 “1분 설교에 1시간, 25분 설교에 25시간의 준비가 정상이라고 부르짖는 설교 신학자들의 말과는 너무 거리가 먼 우리의 설교현장이다.”¹⁴⁷⁾라고 설교준비시간의 부족이 설교의 위기적 현상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목회자의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지도록 교회행정의 발전과 改善이 시급한 것이다.

또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교회성장을 주도하는 목회자의 유능¹⁴⁸⁾과 교회행정의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¹⁴⁹⁾

145) 이정일, “설교에서 느끼는 고민과 갈등” 기독교 사상 3집(85.9), p.56.

146) 정장복, 「설교학 강의」(서울: 장신대설교학교실, 1986), p.5.

147) 이종윤의,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pp.215-217.

148) 권달천 교회성장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75.

149) 정장복, 「前揭書」 p.6.

第 5 章 結 論

本稿는 기독교의 精神 속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民主性에 대한 考察로써 教會行政의 民主化에 있어서 그 理論들과 問題點들을 밝히고 그 문제점들을 改善하는 實踐 方案에 관하여 관심을 두고 研究하였다.

실제로 教會行政은 語源的으로 볼때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성서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百姓들을 다스릴때 그를 대리한 신실한 지도자들을 두어 職務分擔을 통해 效率性を 높여 봉사의무를 나누어준 것은 어떤 意味에서 교회행정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實例에서 보듯이 行政이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가 스스로가 직접 맡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職務를 分擔시키지 않는다면 行政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행정이란 교회의 諸分野를 조직하고 運營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즉 교회의 전체목회를 성취하기 위한(목회를 인도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행정한다”라는 말은 라틴어의 ‘administare’에서 派生되었으며 奉仕한다(to serve)라는 意味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行政은 봉사하고자 하는 主體와 奉仕의 對象과 과정 및 모든 目的을 포함하는 包括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회행정의 기본이념은 기독교 信仰과 敎人の 신앙이 거듭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행정의 唯一한 目的이 거듭난 百姓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교회의 目的을 成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교회행정에서는 신학적 차원이 늘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本 研究는 교회행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理論的 考察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분석하여 그 속에 나타난 교회행정의 의미를 考察하여 보았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思想과 敎訓이 含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행정의 이념적 원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주기도문의 각 項目을 하이델베르크 要理問答에서 나누고 있는 여섯 項目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바 教會내에서 하나님과 우리 人間과의 관계, 그리고 지도자인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가지 問題點들을 행정의 理論的 側面에서 살펴

보게 되었다.

비민주적 요인으로서는 교회내의 목회자의 權威性 문제, 사회를 위한 奉仕精神이 결여된 이기적인 교회의 樣相, 행함이 없는 신앙적 행동의 缺如 現象, 하나님을 代辯하여 목회자 自身이 한 것과 같은 인간능력의 絶對化 의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폭발적인 교인수의 量的 擴大와 더불어 교회의 규모가 外形적으로 대규모화 하고 있어 現代社會에서 교회조직도 時代의 發展 추세에 따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할 必要를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목회자들은 교회행정에 관한 관심을 철저히 輕視하고 있어 많은 問題點들을 包含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미 言及한 교회행정의 非民主的 요인과 교회행정 組織上의 문제점 그리고 교회행정의 運營上의 문제점들로 分類하여 살펴서 이러한 비민주적 요소들을 除去해야만 할 것이다.

以上の 研究 結果를 綜合하여 볼때 이러한 문제들을 改善하기 위한 교회행정의 민주화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方案으로 검토해 보았다.

첫째는 지나친 權威意識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섬기는 종’의 자세로 교회가 人間化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教會 本來의 使命인 社會奉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교회의 使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사회봉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세째는 인간성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人間性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사랑의 공동체인 教會가 교회조직과 운영 내부에 있는 낭비와 비효율성 그리고 비민주성을 根絶하고 改善시켜 教會行政의 能率的 運營을 통하는 길(道)만이 교회행정의 活性化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改善方案에 힘쓸때 未來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地上의 使命인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빛과 소금의 役割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교회가 온전한 使命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회행정상의 문제점들을 謙虛하게

받아들이고 교회행정의 民主化 方案에 대한 實踐만이 주님이 맡겨주신 使命을 충성스럽게 堪當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文獻〉

1. 국내서적

- 1) 김계욱, 교회와 행정, 서울 : 교회교육연구원, 1987.
- 2) 김규정,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4.
- 3) 김득룡, 현대교육행정학신강, 서울 : 총신대학출판부, 1985.
- 4) 존 칼빈, 칼빈의 기도론, 김성주 옮김, 서울 : 남해문화사, 1985.
- 5) 김영호, 교회교육행정, 서울 : 종로서적, 1985.
- 6) 존 칼빈, 기독교강요 제4권, 김문제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80.
- 7) 김형태, 변천하는 사회와 교회의 갱신, 서울 : 복된말씀, 1973. 4월호
- 8) DM. 로이드 존스, 목사와 설교, 서문강역, 서울 : 예수교문서 선교회, 1977.
- 9) 매튜헨리, 마태복음 (상), 고영민역, 서울 : 기독교문사, 1976.
- 10) 몰트만, 창조안에 계신 하나님, 김균진역, 서울 : 한국신학연구서, 1986.
- 11) 박봉배, 기독교 윤리와 한국문화, 서울 : 성광문화사, 1983.
- 12) 박희민, 주기도문 강해설교, 보이스사, 서울 : 1984.
- 13) 바클레이, 예수의 칭호연구, 서울 : 성광문화사, 1979.
- 14) 박봉량외 4인, 성령의 능력안에 있는 교회,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0.
- 15)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 한길사, 1986.
- 16) 로이드 존스, 설교의 파트너, 정장복역, 서울 : 양서각, 1982.
- 17)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서울 : 성경읽기사, 1989.
- 18) 이순경, 주님의 기도, 서울 : 기독교문사, 1981.
- 19) 이상근외 16인, 한국교회 내일의 과제, 서울 : 한국문서선교회, 1982.
- 20) 임은종, 기도하는법, 서울 : 목회자료사, 1988.
- 21)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목회학원론, 박근원역,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79.
- 22) 유종해, 현대조직관리론, 서울 : 박영사, 1982.
- 23)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 : 대한예수교 총회본부, 1975.
- 24) 알. 씨. 에이치. 렌스키, 성경주석 : 야고보서, 진연섭역, 서울 : 백함출판사, 1976.

- 25) 이창우, 기독교와 은사활용, 서울 : 한국기독교문화협회, 1980.
- 26) 이정일, 설교에서 느끼는 고민과 갈등, 서울 : 기독교 사상, 1985.
- 27) 이종윤, 교회성장론, 서울 : 정음출판사, 1983.
- 28) 정장복, 설교학강의, 서울 : 장로회신학대 설교학교실, 1986.
- 29) 존. 칼빈,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성주역, 서울 : 풍만, 1985.
- 30) 존c. 디센, 중소교회목회론, 김만풍역, 서울 : 아카데미출판사, 1980.
- 31) S. T.로버츠, 주기도문연구, 이상근. 문창수역, 서울 : 서문사, 1977.
- 32)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 크리스찬헤럴드사, 1981.
- 33) 안트, 신약의역사, 지원상역, 서울 : 컨콜디아사, 1981.
- 34) 피터와그너, 성령의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역,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2.
- 35) 하해룡, 현대문화와 교회현실, 서울 : 복된말씀사, 1973.
- 36) 홍정길, 주기도문강해, 서울 : 새순출판사, 1984.
- 37) 한모길, 신의혁명과 인간의책임, 세계기독교 사상전집 제12권, 서울 : 신태양사, 1978.
- 38) 박양조 책임편집, 기독교대연감, 서울 : 기독교문사, 1989.

2. 국내논문

- 1) 강대화, “한국교회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 1982.
- 2) 김경훈, “한국교회정치와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8.
- 3) 심창근, “교회행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86
- 4) 안중길, “교회행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 5) 이정희, “목회자의 인격과 생활에 대한연구”, 참신논집, 제7집, 침례신학대학, 1984.
- 6) 오무근, “리이더쉽과 농촌발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87.

3. 외국서적 및 논문

- 1) Anderson, R. S. ed., Theological Foundation for ministr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79.
- 2) Bruner, F. D. Theology of Holy Spirit, Grand Rapids : W. B. Eevdmans pub. Co., 1970.
- 3) Calvin, Joh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vo.14. philadelphia : the Westem-inster Press. 1960.
- 4) Cox, H. God's Revolution and Man's Responsibility, Glendale : Regal Book 1976.
- 5) Dale. E. "Planning and Developing the Company Organization Structure" American Management, 1982.
- 6) Ernst Lohmeyer, Our Father, New York : Harpa & Row, 1965.
- 7) Flynn, Leslie B. 19 Gift of the Spirit, victor Books, 1979.
- 8) Horton, Harold, The Gift of the Spirit Gospel Publishing House, 1975.
- 9) Molteman Kirche Der Kraft des Geistes, Munchen : Chr. Kaiser Verlag, 1975.
- 10) Peter Wagner, C. Your Spiritual Gifts, Glendale : Regal Book, 1979.
- 11) Pfiffner J. & Sherwood, F. Administrative Theory, New Jeysey : Prentice Hall, 1960.
- 12) Richards, L.O. A New fac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 Zondervan, 1970.
- 13) Scott, E.F. The Lord's pray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un's, 1952.
- 14) Tenney, Merrill C. The Zonderz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 V Hagerstown : Zondervan, 1977.
- 15) West C. Churchman, the System Approach, New York : Dell : Delta Books, 1969.

Abstract

A STUDY ON A PRACTICAL METHOD FOR DEMOCRATIZATION OF CHURCH ADMINISTRATION

— on the focus of the korean church —

Soo-Nam Kim

Major in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Church administration can be defined as every activity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in all fields of the church. That is to say, it means administrative activity for achieving the whole church ministry.

The word “administrate” is derived from “administare” in Latin and its meaning ; to serve.

Accordingly, in the respect of service this administration contains not only the subject of administration but also the object and process of administration.

Futhermore, in a sense of politic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achieves a common purpose and a public aim of all society and promotes therational and collective cooperation among members of the society to realize social justice.

In order words, it means “decision and cocretion of public policy of achieving public interest, social justice, social equality and cooperative group—action in poiltical situation. In the respect of service, it may be sai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 and church administration.

In fact the foundation of all church administration must be based on the christian faith and the believer’s belief. For the only purpose of church administration achieves the aim of the church in which reborne people gather and form. This is a reason why theological dimension always accompanies with church administration. This theological

study provides the aim of church administration and of the same time indicates the limit of its method.

If church politics forms the most authoritative decision and authority of accomplishment of church opinion, church administration is understood as its concrete realization and its process of accomplishment of church opinion under the condition of such church politics.

Therefore, church administration needs skills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 order to accomplish its task that realize and charge the aim and opinion of church.

No matter how the size of church may be, even a small church, modern church needs various structure and organization.

Especially, since church sets up its purpose of administration with believers and relates its organization to it, it needs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on and manages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However, church administration can not be by itself the aim of the church, but the means of the church for achieving effectively the aim of worship, missionary work and only service to God.

On the other hand, we sometimes pray the lord's prayer without attention even though it comprehends all thoughts and lessons of christianity.

Today all member of the church pray the lord's prayer when their worship. Since the lord Jesus Christ teaches this prayer to his disciples, there is no more perfect example of prayer than this.

Nevertheless, when christian believers pray lord's prayer, how much do they pray to the lord in heaven so that they may sincerely comprehend the contents and meaning of the prayer?

In the case of worship without the pastors benediction believers recite habitually lord's prayer at the end of the service as a necessary order when there is worship or meeting, but they need to hold their new understanding and study about the lord's

prayer.

The author takes the text of the Lord's prayer from the contents of The Gospel of Matthew, and investigates five items into five items according to the Heidelberg Catechism : authority and obedience, the divine right and human rights, productivity, democracy and philanthropy, the limit of human capability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idea.

In conclusion, the study of the plan of democratization of church administration investigates administrative idea of christiani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ord's prayer, and at the same time investigates humanization of authority, ignorance of productivity, the aspect of christian selfishness, faith without action, the absolutization of minister's authority in the name of the lord's prayer the democratic present condition of Korean church admin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the plan of democratization of church administration ; that is to say, distinction between the authority of God and authority of the human, activation of production for social salvation, the practical movement of human respect, and elimination of church centered almighty thought a proper approach to those problems can be possible through the democratization of church administration.